

2026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가. 정부 현황	0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1
3. 주요 이슈 Pick	15
가. 경제안보 강화 :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가 자주권 확보	15
나. 미국발 관세로 불확실성 확대, 교역국가 다변화 추진	16
다. 공공복지 증대 : 국민 생활여건 개선 가속화	17
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속도 조정 국면	18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2
가. 시장 특징	22
나. 무역	28
다. 산업	35
라. 투자	40
2. 유망 산업	43
가. 보건 의료 산업	43
나. 농림어업	45
다. 디지털 인프라	47
3. 협력 기회	50
가. 통상·G2G	50
나. 프로젝트	52
다. 공급망(자원개발)	56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60
2. 진출전략	62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79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81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82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83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3. 주요 이슈 Pick	15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유지) '26년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19% 관세 부과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전망
 - 미국의 전 세계적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규모 축소, 인니 수출 환경 위축 예상
 - 인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미국의 對中 고율 관세 영향)로 인니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EU 등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전략은 긍정 요인
- 대내 거시 불안정성과 수요 둔화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재정 불균형, 산업 수요 위축, 가계 소비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f	2026년 ^f
인구	백만 명	272	275	277	279	281	283	285	288
명목 GDP	십억 달러	1,119	1,059	1,186	1,319	1,371	1,396	1,414	1,489
1인당 명목 GDP	달러	4,175	3,912	4,349	4,784	4,919	4,958	5,026	5,344
실질 성장률	%	5.0	-2.1	3.7	5.3	5.0	5.0	4.7	4.4
실업률	%	5.1	6.0	6.4	5.9	5.4	4.9	4.9	5.0
소비자물가 상승률	%	3.0	1.9	1.6	4.2	3.7	2.3	1.6	2.7
재정수지(GDP 대비)	%	-1.8	-2.2	-6.1	-4.6	-1.7	-2.3	-3.1	-3.1
총 수출	백만 달러	167,002	163,307	231,522	291,979	259,527	266,529	280,587	285,638
(對韓 수출)	백만 달러	7,210	6,506	8,980	12,813	10,301	10,755	11,400	11,606
총 수입	백만 달러	170,388	141,622	196,189	237,447	223,107	235,119	248,612	257,562
(對韓 수입)	백만 달러	8,416	6,849	9,427	11,718	10,253	9,707	10,328	10,700
무역수지	백만 달러	-228	3,508	28,301	43,806	36,420	31,410	31,975	28,076
경상수지	백만 달러	-30,279	-4,433	3,511	13,215	-2,042	-8,681	-8,776	-8,916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4,147	14,582	14,308	14,849	15,236	15,855	16,446	16,52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82	287	311	456	503	600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9.3	1.73	2.3	2.6	100.0	127.0	150.0	-

주: '25년 및 '26년은 전망치 기입(EIU), 對韓수출입은 총수출입 증감율을 반영해 산출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니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IMF, EIU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4.7~5.2%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29년까지 연 8%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 정부는 핵심 인프라 투자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정부지출 확대 기조 유지 전망

최근 5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7	3.70	5.31	5.05	5.03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주요 기관들은 인니 경제성장이 2025~2026년 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5.03%보다 낮은 수준이나 견조한 내수와 전자산업 수요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OECD, AMRO)
- 미국 관세로 중국의 인니산 중간재 수요가 위축되며 간접 부담이 예상되고, 통화정책 완화는 단기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소득 부진으로 효과가 제한될 전망(The Economist)

주요 기관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기관명	2025년	2026년
World Bank	4.7	4.8
OECD	4.7	4.8
IMF	4.8	4.8
AMRO	4.8	4.7
인니 재무부	5.2	5.4

자료: World Bank('25.6.), OECD('25.6.), IMF('25.7.), AMRO('25.7.), 인니 재무부

- (소비) '25년 세계적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역시 민간 소비 증가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
 - 인니에서 민간 소비는 GDP 구성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
 - 민간 소비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임에도, 200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4.3%에 그쳐 GDP 성장률(연평균 4.9%)보다 낮은 흐름을 보임
 - 향후 가계 소득 증가세 둔화와 고용 여건 불확실성이 소비 확대를 제한할 것(OECD)
 - 노동시장 개선과 물가 안정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 관세 충격과 글로벌 금융조건 긴축으로 소비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음(AMRO)

민간 소비 GDP 기여율

(단위: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4.4	51.9	53.2	54.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기간별 민간 소비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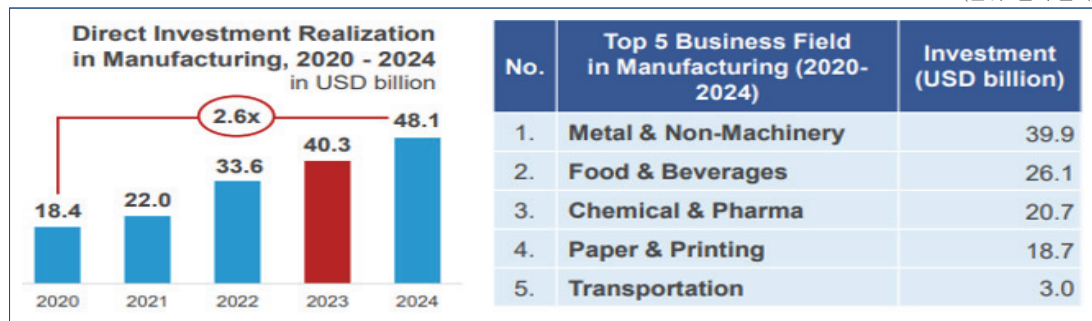
구분	2000~2009년	2010~2019년	2020~2021년	2022~2024년	전체기간
민간 소비(C)	4.28	5.09	-0.31	4.90	4.31
경제 성장률(Y)	5.13	5.53	0.82	5.13	4.94

자료: LPEM University of Indonesia, Indonesia Economic Outlook 2025년 3분기

- (투자) 전반적으로 투자 활동이 둔화하고 있으나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가 일부 완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24년 전체 투자금액은 1,143억 달러 수준(FDI 포함)으로 '20년 대비 2.1배 증가
 - 투자금액 중 42%는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제조업 투자금액은 '20년 대비 2.6배 증가
 - 세계적으로 투자 전방위적 둔화가 예상되며, 향후 인니도 산업 부문 설비투자 감소 가능성이 전망됨 (IMF)

〈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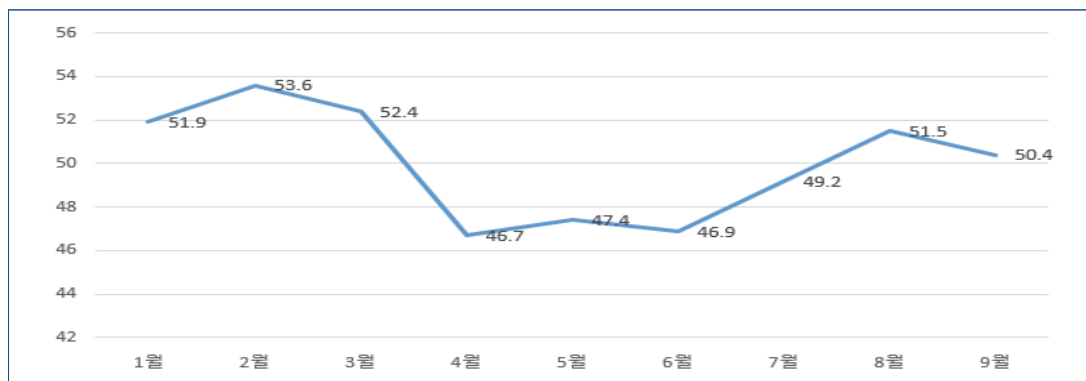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25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인니 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위축 양상
 - 대내적으로 고금리, 루피아 절하 이슈로 인도네시아 내수 자체가 부진하고 있으며, 미국 섯다운으로 무역협정 체결이 지연되며 기업들은 생산을 축소하고 재고를 조정

〈'25년 인도네시아 PMI 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 '25 수출금액은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출 품목인 팜유(2.5%), 주석(7.5%), 커피(44.1%), 구리(2.6%)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수출금액 증가에 기여

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수출	2,316	2,920	2,595	2,665	1,849
수입	1,962	2,374	2,231	2,351	1,559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9월)

- '24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6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23년 기록 경신
 - 인니 정부의 다운스트림 산업육성 정책으로 니켈 등 광물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인도네시아 FDI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FDI	310	456	503	600	272
증감률	8.4	46.7	10.3	19.4	-3.2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상위 5개 투자국은 ① 싱가포르 ② 홍콩 ③ 중국 ④ 말레이시아 ⑤ 미국 순

〈주요 FDI 투자국〉

(단위: 십억 달러)

2020			2021			2022			2023			2024		
No.	Country	\$ billion	No.	Country	\$ billion	No.	Country	\$ billion	No.	Country	\$ billion	No.	Country	\$ billion
1	Singapore	9.8	1	Singapore	9.4	1	Singapore	13.3	1	Singapore	15.4	1	Singapore	20.1
2	China	4.8	2	Hong Kong	4.6	2	China	8.2	2	China	7.4	2	Hong Kong	8.2
3	Hong Kong	3.5	3	China	3.2	3	Hong Kong	5.5	3	Hong Kong	6.5	3	China	8.1
4	Japan	2.6	4	United States	2.5	4	Japan	3.6	4	Japan	4.6	4	Malaysia	4.2
5	South Korea	1.8	5	Japan	2.3	5	Malaysia	3.3	5	Malaysia	4.1	5	United States	3.7
6	Netherlands	1.4	6	Netherlands	1.8	6	United States	3.0	6	United States	3.3	6	Japan	3.5
7	Malaysia	1.0	7	South Korea	1.6	7	South Korea	2.3	7	South Korea	2.5	7	South Korea	3.0
8	United States	0.74	8	Malaysia	1.4	8	Netherlands	1.2	8	Netherlands	1.3	8	Netherlands	2.0
9	Taiwan	0.55	9	Bermuda	0.67	9	Bermuda	0.96	9	British V.I.	0.65	9	British V.I.	0.77
10	Australia	0.34	10	Switzerland	0.59	10	United Kingdom	0.62	10	Australia	0.55	10	United Kingdom	0.7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한편, 인도네시아 전체 아웃바운드 투자 규모는 97억 달러 수준

인도네시아 대외 투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2024년
3.35	4.45	3.84	7.32	7.07	9.70

자료: ASEAN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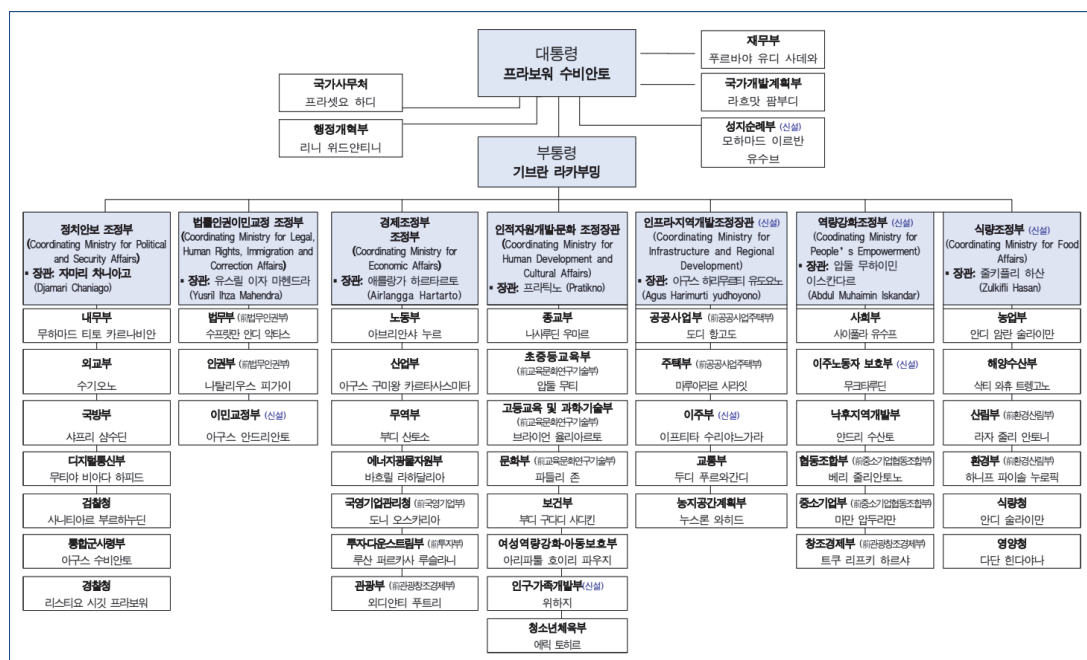
2. 정치 환경

가. 정부 현황

□ 역대 최대 규모의 프라보워 내각

- “메라 푸티(Kabinet Merah Putih, 적백 내각)”로 명명된 프라보워 내각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구성
 - 행정부는 총 48개 부처(7개의 조정부, 41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임 조코위 정부의 34개 부처 대비 14개 부처가 증가한 수준
 - 장관과 정부 기관장은 총 109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임명된 장관은 48명으로 조코위 정부 당시 34명보다 14명이 증가

〈프라보워 메라 푸티 내각도〉



자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25.6.),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25.10.)

- (부처) 재무부, 행정개혁부, 국가사무처, 국가개발계획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
 - 재무부와 행정개혁부의 역할이 포괄적인 점을 감안, 필요에 따라 조정 회의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간소화
 - 신정부는 무상금식 등 대표 공약 이행을 위해 신규 조직 신설

신규 신설 조직

조직명	주요 내용
국가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1999년 설립되었으나, 1년 만에 해산. 이후 프라보워 정부 출범과 함께 재설립되었음 - 루훗 반자이판 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경제 싱크탱크로 기능
대통령 특별자문·특사·전문보좌진 (Advisors, Special Conveys, Specialized Staff to the President)	- 대통령 특별자문 : 자문기구로 부처 관할 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 대통령 특사 :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되며,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상 수행 - 전문보좌진 :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운영을 실무 차원에서 조정
국가영양청 (National Nutrition Agency)	- 대통령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주도하며, 기존 국가식량청의 식량 및 영양 담당 기능을 이관 받음 - 아동 영양관리 및 급식 정책 실행을 총괄
BPI 다난타라 (BPI Danantara)	국영기업의 투자성과를 강화하고,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유사한 자산운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국부펀드
개발감독 및 특별조사청 (Development Control and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 국가개발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기구로 신설됨 -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비효율을 방지하는 임무 수행
빈곤퇴치 촉진청 (Poverty Reduction Acceleration Agency)	인니 전역의 빈곤 관련 정책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기구로, 각 부처의 빈곤 관련 사업을 정렬하고 통합된 실행 전략을 수립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 (입법부) '24년 총선 결과, 8개의 정당이 국민대표회의 의석을 배정받음

-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 예산권, 행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 우리나라의 국회 격에 해당

- 대선과 함께 치러진 '24년 총선 결과, 총 580명의 하원 의원이 선출됨
- 前여당인 투쟁민주당(PDI-P)는 최대 의석수를 차지하는 야당으로 변화, 8개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프라보워 연정에 참여하지 않음

〈인도네시아 정당별 의석 수〉

투쟁민주당 110석	골카르당 102석	그린드라당 86석	나스데미당 69석	국민계몽당 68석	복지정의당 53석	국민수권당 48석	민주당 44석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프라보워 정부의 전(全)자원 다운스트림화 정책〉

- 조코위 前정부는 인도네시아에 풍부하게 부존된 광물 활용, 원광 수출금지 정책을 통해 금속 부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가속화
 - 단순 자원 수출구조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까지 동시에 도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기초금속 분야 FDI 유입이 가속화되어 '24년 1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년 대비 127% 증가
- 프라보워 정부는 광물·에너지·농수산·신재생까지 포괄하는 다운스트림 정책 추진
 - * “모든 원자재에 대해 다운스트리밍을 시행하겠다” 2024년 10월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연설中
 - 프라보워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산, 광업,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 등 총 28개의 핵심 원자재 분야를 국가적 다운스트림화 우선순위로 지정

〈인도네시아 주요 자원〉



주: 인도네시아의 세계 생산 순위 및 점유율 기준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25.6.)

- 프라보워 정부는 ‘다운스트림화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가속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 구성
 - TF는 광물·석탄·석유·가스, 농림수산업 등 다양한 자원을 대상으로 다운스트림 전략을 조율하며,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위원장, 농지·공간기획부 장관이 토지 확보 부문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으로 지정
- 국부펀드인 다난타라(Danantara) 적극 운용하여 쏠자원 다운스트림화 추진 예정
 - 다난타라는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과 같은 인니 국부펀드로,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영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년 2월 공식 출범
 - 52개의 국영기업 지분을 포함시켰으며 운용 규모는 9,8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세계 4위 규모)
 - 프라보워 정부는 해외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위한 수단으로 다난타라를 활용, 인니 전략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확대 도모

다난타라 주요 투자 분야

투자 분야	세부 내용
광물 개발 및 가공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등의 광물 채굴 및 정·제련 산업
인공지능(AI)	AI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정유 산업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분야 투자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식품 산업	식품 생산 및 가공 분야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투자부가 선정한 지역별 유망 다운스트림 육성 자원〉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력수급계획 발표〉

- 인니 정부는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 '24년 인도네시아는 총 100.6G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14.1%에 불과 * 2024년 기준 석탄 발전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 인니 국가 차원의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는 국가 에너지 일반계획(RUEN), 국가 전력 일반계획(RUKN), 전력수급계획(RUPTL)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짐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



자료: 세계은행(2025.06)

- 인니 정부는 '25년 5월 전력수급계획(RUPLT 2025~2034년) 발표, 총 69.5GW의 추가 발전 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1%로 확대 예정
 - 수력·풍력 설비, 지열 발전 등 관련 기자재와 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인니 정부 발전 용량 추가 계획

구분	신재생	화석연료	에너지
용량	42.6 GW(61%)	16.6 GW(24%)	10.3 GW(15%)
구분	• 태양광 : 17.1 GW • 수력 : 11.7 GW • 풍력 : 7.2 GW • 지열 : 5.2 GW • 바이오 : 0.9 GW • 원자력 : 0.5 GW	• 가스 : 10.3 GW • 석탄 : 6.3 GW	• 배터리 : 6.0 GW • 양수발전 : 4.3 GW

자료: 인도네시아 전력수급계획(RUPTL)

〈8,290만 명에게 무료 급식을... 무상 급식 정책〉

- 프라보워 정부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26년 예산 96% 증가
 - 인니 전역의 학생과 임산부 대상으로 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국가 프로그램
 - 아동·모성의 영양 상태 개선과 학습·건강 격차 완화, 나아가 지역 농가·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 '25년 44억 달러로 시작해 107억 달러로 확대하여 사업 집행 개시
 - 인니 정부는 '26년 무상급식 정책 예산을 209억 달러(335조 루피아)로 대폭 확대, 총 8,290만 명에 무상급식 제공 예정
- * '26년 정부 제출 예산은 1,960억 달러(3,136조 루피아)로, 무상급식이 단독으로 전체 정부 제출 예산의 11%를 차지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사진〉



자료: Reuters, Tempo

- 인니 정부는 무상급식의 GDP 기여도를 약 0.7%로 추정하였으며 조리장(SPPG) 3만 개 구축으로 15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2025년 무상급식 정책〉

	EXISTING	INITIAL TARGET	EXPANSION OPTIONS		EST. IMPACT
	Jan 2025	Des 2025	Moderate Des 2025	Optimistic 2025	
Timeline	Jan 2025	Des 2025	Des 2025	Optimistic 2025	• Contribution to GDP: 0.7% • Employment Involvement: Approximately 185,000 workers • Poverty Reduction: 0.19 Percentage Points
SPPG	220	5,000	15,000	28,000*	
Coverage of SPPG	3,000 beneficiaries	3,000-4,000 beneficiaries	3,000 beneficiaries	3,000 beneficiaries	
Beneficiaries	589,902 student, pregnant women & toddlers	15,5 million student 2,4 million pregnant women & toddlers	40 million student, pregnant women & toddlers	82,9 million student, pregnant women & toddlers	
Budget (IDR)	71T	71T	71T + 100T		

*To ensure 28,000 SPPG are operational by 2026, preparations must begin in 2025 with optimized additional budget allocation in 2025.
**Estimated population of toddlers, school students, and pregnant women - Susenas 2024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3. 주요 이슈 Pick

가. 경제안보 강화 :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가 자주권 확보

□ 프라보워 대통령은 식량·에너지 자급자족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강조, 경제 주권 강화를 국가 자주권 확보의 선결 요건으로 인식

- (배경)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기후위기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 완화를 위한 대응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
 - 2025~2029년 중기개발계획과 국가전략사업(PSN)에 해당 기조가 반영되어, 신규 PSN 과제의 약 68%가 식량·에너지 부문에 집중
- (식량)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식량 보전’ 이니셔티브 추진
 - 프라보워 정부는 식량안보를 자주권 행사의 필수요소로 간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 경작지 확대 ▲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인도네시아 식량 자급자족 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 식량 자급자족 추진 로드맵 구축	• 양수식 관개 사업(100만 헥타르) • 습지 활용 최적화(100만 헥타르) • 신규 논 조성(100만 헥타르) • 관개시설 개선(100만 헥타르) • 신규 저수지 활용(20만 헥타르) • 쌀 수입 축소	• 신규 논 조성(100만 헥타르) • 관개시설 개선(100만 헥타르) • 신규 저수지 활용(20만 헥타르) • 쌀 수입 중단
준비단계	2천 500만 톤까지 생산 증가	500만 톤까지 생산 증가
2027년	2028년	2029년
• 신규 논 조성(100만 헥타르) • 관개시설 개선(100만 헥타르)	• 신규 논 조성(100만 헥타르) • 쌀 수출	• 신규 논 조성(100만 헥타르) • 쌀 수출 • 인도적 목적의 쌀 지원
7백 50만 톤까지 생산 증가	1,000만 톤까지 생산 증가	1천 2백 50만 톤까지 생산 증가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 (에너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정책 추진
 -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정제역량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

〈에너지 자급자족 정책 방향〉

① 화석연료 생산, 정제 역량 강화

유류 유정 재가동, 유전 탐사 확대
발릭파판, 발롱안 정제소 현대화

②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개선

'34년까지 42GW, 태양광 풍력 등으로 구성
인니 전역에 송전선 및 변전소 건설

③ 바이오에너지 확대

바이오디젤 B40 도입, B50으로 확대 추진
바이오에탄올 도입, 휘발유 대체 추진

④ 폐기물 에너지화 (Waste-to-Energy)

12개의 도시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
30개 도시 확대 추진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나. 미국발 관세로 불확실성 확대, 교역국가 다변화 추진

□ 미국은 대규모·연례 반복적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 인니에 대한 조정된 추가관세는 19%이며, ASEAN 평균은 24.4% 수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자료: 미국 백악관, 머니투데이

국가별 상호관세율

국가(및 경제권역)	상호관세율		국가(및 경제권역)	상호관세율	
	4월2일	8월7일		4월2일	8월7일
방글라데시	37	20	파키스탄	29	19
브라질	10	10+40	필리핀	17	19
캄보디아	49	19	세르비아	37	35
EU(유럽연합)	20	0~15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인도	26	25+25	대한민국	25	15
인도네시아	32	19	스위스	31	39
일본	24	15	대만	32	20
라오스	48	40	태국	36	19
말레이시아	24	19	튀르키예	10	15
미얀마	44	40	영국	10	10
뉴질랜드	10	15	베네수엘라	15	15
나이지리아	14	15	베트남	46	20
노르웨이	15	15			

*브라질 40% 추가 관세는 3/24일 30일 특혜로 행정명령으로 8월부터 부과

*인도 25% 추가 관세는 8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발표, 오는 27일부터 발효

출처: 머니투데이

- 인니는 GDP 대비 교역 비중이 36%에 불과한 내수 중심 경제로, 다른 ASEAN 국가들 대비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ASEAN 주요국 GDP 대비 교역 비중〉



인도네시아 36%



말레이시아 150%



베트남 171%



태국 176%



싱가포르 176%



필리핀 43%

자료: Global Trade Atlas('25.5.), 베트남 상무부('25.5.)

- 현지에서는 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직접적 영향보다, 미중 간 교역 감소로 (1) 中 저가 제품 유입 확산, (2)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보다 우려
 - * (섬유산업협회) 인도네시아 의류·봉제업 보호 조치 필요성 강조
 - * (석탄광업협회)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對中 석탄 수출에 악영향 발생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인니 정부는 ▲ASEAN·브릭스 협력 확대 ▲무역 파트너 다변화 등 대외경제 다변화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高관세에 대응

다. 공공복지 증대 : 국민 생활여건 개선 가속화

□ 정부 주도 공공복지 지출 확대, 빈곤 퇴치·질병 예방 등 현안 해결 주력

- 프라보워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 생활 기반을 개선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조
 - 기본적인 영양 지원, 위생·감염병 관리 등 보건 시스템 정비,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인적 역량 제고를 동시에 추진
 - 빈곤층을 중심으로 민간 가처분소득 보전,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내수 진작 효과도 병행 추구
- 정부는 이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26년 정부 예산 초안에 공공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2026년 인도네시아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

(단위: 억 달러, %)

분야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초안	
		예산	증감율
교육	451	473	4.5
보건	137	153	10.2
복지	315	318	0.6
식량안보	91	103	11.6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이외에도 정부는 내수 진작 및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약 15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25년 6~7월 2개월 간 시행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통비 할인	• 항공료, 열차운임 할인
톨게이트 할인	• 전국 톨게이트 통행료 20% 할인
전기요금 지원	• 약 7,930만 가구 대상, 전기요금 50% 할인

구분	주요 내용
식량·사회지원	• 1,839만가구에 매달 13달러, 10kg 쌀 지원
임금 보조금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특히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19달러 지원
실업보험료 지원	• 노동집약산업 종사자 270만 명 대상 실업보험료 50% 지원

자료: 현지 언론사 종합

- 신정부의 직접 분배 정책은 상당한 재정지출을 초래하며, 이에 따른 조세 기반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는 정부의 주요 과제
 - 정부는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로 판단되는 항목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진출기업 유의 필요
- * '22년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12%로, 아-태 국가 평균인 19%와 OECD 평균 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속도 조정 국면

□ 신수도 이전 사업은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의 누산타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프로젝트

- 총 비용은 466조 루피아(약 278억 달러)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20%를 투입하고, 나머지 80%는 해외투자를 포함한 민간자본 조달 계획
- 신수도 이전 사업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2024년 1단계 개발 완료

인도네시아 단계별 신수도 이전 계획(초기)

단계	연도	목표	세부 내용
1	2020~2024년	초기 단계 이전	• 핵심 인프라 구축 단계 • 초기 단계 공무원 이전 • 50만 주민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24년 8월 16일 이전 대통령궁 입주
2	2025~2035년	핵심 영역으로 구축	• 도시 개발 단계 • 정부 부처 이전 완료 • 우선 경제 부문에 대한 개발 및 인센티브 실행 •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
3	2035~2045년	모든 기반 시설 및 생태계 개발	• 완전한 연결 구축 단계 • 우선 경제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1위 목표 • 동남아 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치 상위 5위 도시 목표 • 순환경제 시행 • 인재 개발 및 혁신센터 개발

단계	연도	목표	세부 내용
4	2045년 이후	A Global City for All	- 전 세계 모드를 위한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 -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 상위 10위 목표 - 탄소배출 제로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100% 달성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 이후 대표 공약인 복지정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인프라 건설 사업 예산 삭감

- 정부는 '25년 1월 2025년 대통령령 제1호 발표, 중앙·지방정부 예산 효율화 추진
 - 재무부는 전체 정부 예산의 8%에 해당하는 186억 달러를 무상급식, 무료 건강검진 등이 포함된 정책 패키지인 Quick Win Program으로 재조정
 - * 조정된 예산 구성 : 중앙정부 예산 155억 달러, 지방정부 예산 31억 달러
 - 예산 조정으로 공공사업부 예산이 약 70% 삭감, 도로·교량 등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의 전면 재조정 또는 중단 가능성 제기

주요 부처 예산 삭감 현황

(단위: 억 달러, %)

부처	조정 전	조정 후	삭감 비율
공공사업부(Ministry of General Works)	72	22	70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19	8	58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전체적인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서, 신수도 이전 속도 또한 조정될 전망
 - '25년 신수도청 예산은 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9% 감소되었으며, '26년 예산은 소폭 증가 예정이나, 조코위 前정부 시기의 예산 규모 대비 대폭 축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예산 추이

(단위: 억 달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조코위 정부〉			〈프라보워 정부〉	
3.4	17	27	2.9	3.9
합계 : 47.4			합계 : 6.8	

자료: 언론사 종합

- 현지에서는 감소한 예산을 근거로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프라보워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것을 우려



신수도 이전 속도에 대한 현지 반응

- 신수도 개발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과거 공언되었던 속도로는 아닐 수 있음(국회 부위원장, '25.8.21.)
 - 신수도청의 현재 예산으로는 직원 급여와 물·전기 요금, 기존 시설 유지관리 정도 밖에 감당하지 못해, 신규 인프라 건설을 뒷받침 할 수 있을지 의문(인도네시아 전략·경제 연구소(ISER), '25.8.)
 - 신수도 이전은 프라보워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 않으며, 다난타라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음(인도네시아 경제·법률센터(Celios) '25.8.)
-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28년까지 신수도 핵심 인프라 완공 지시('25.8.17.)
 - 신수도청장은 대통령이 향후 3년 이내에 국회(DPR), 국민협의회(MPR), 헌법재판소(MK), 대법원(MA) 청사 건설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
 - 누산타라 신수도는 대통령궁, 부통령궁, 주요 부처 청사 등 행정부 건물이 건설 중이지만 아직 완공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IKN)〉



자료: Research Gate,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2
2. 유망 산업	43
3. 협력 기회	50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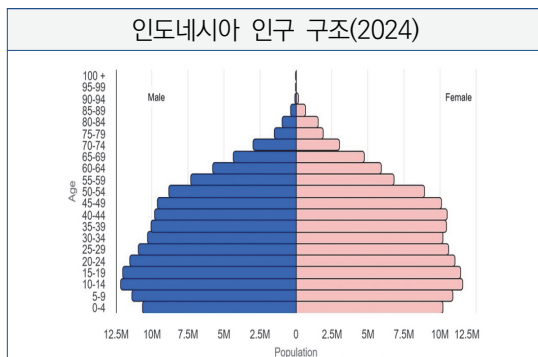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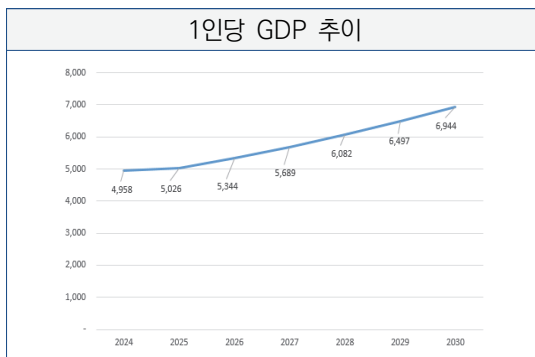
- 세계 4위권의 인구를 가진 시장이며, 연령대가 낮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 동서 길이가 5,100km에 달하는 군도 국가로, 지역별 경제 편차가 큼
-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

가. 시장 특징

□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 세계 4위 규모의 젊은 인구 구조를 지니고 있음
 - '24년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약 2억 8,000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젊은 내수시장 보유
- 향후 구매력 상승이 기대되는 ASEAN 최대 경제 규모를 지닌 시장
 - '24년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는 1조 3,963억 달러로, ASEAN 국가 중 최대
 - '24년 1인당 GDP는 4,958달러이며, '30년에는 6,994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들이 잠재 수요층으로 인식하는 구매력 있는 인구는 자카르타 약 1천만 명으로, 이들의 1인당 GDP는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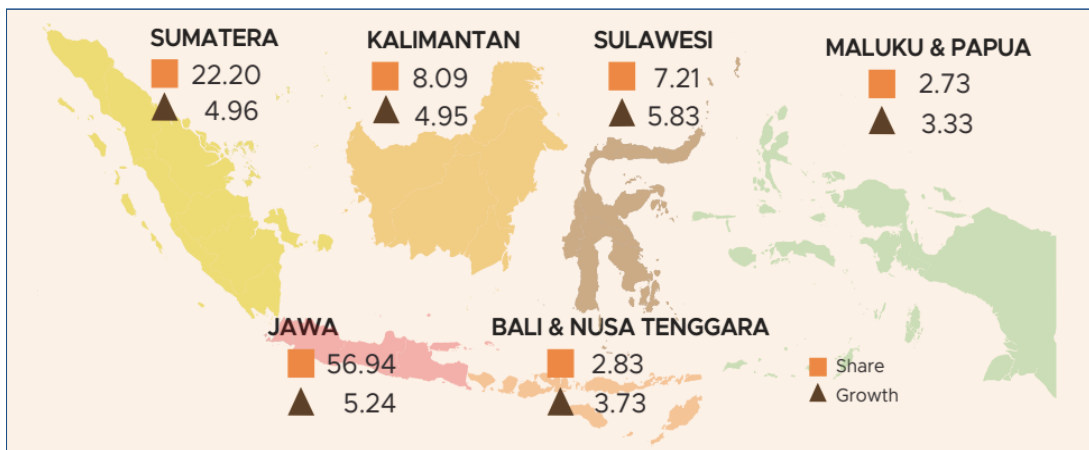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5.4.), US Census Bureau

□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로, 지역별 경제 편차가 존재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수요 확대

- 자바섬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집중과 지역 간 경제 편차 존재
 - '25년 2분기 기준, 자바섬이 GDP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자바섬 (특히 자카르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역 간 소득 수준 편차가 존재하며, 이를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필요
- * 자카르타 한정,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GDP는 2만 달러로 인니 전체 1인당 GDP인 4,920달러를 크게 상회

〈'25년 2분기 인도네시아 지역별 GDP 성장률 및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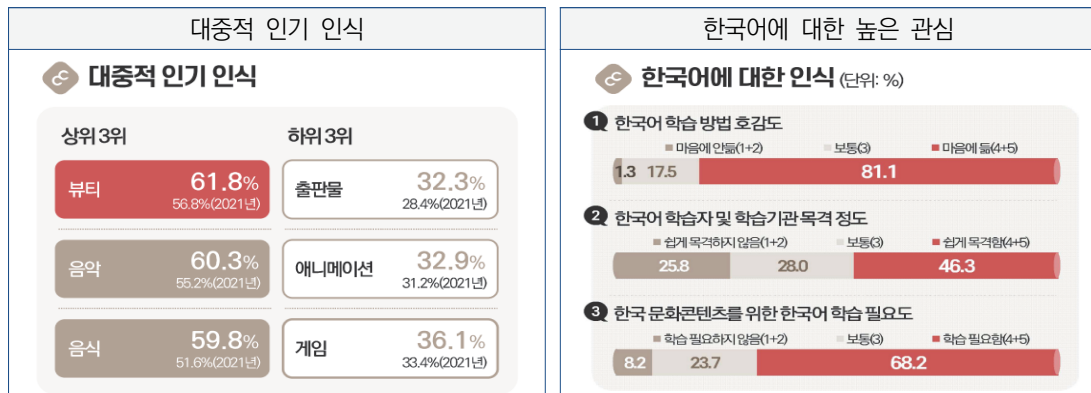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5.9.)

- 국가 간 물류뿐만 아닌 인도네시아 내 섬 간의 물류 비용 고려 필요
 - 인니는 넓게 섬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니 내에서의 유통·물류 비용에 대한 사전 고려 필요
 - * 인니 서단-동단 거리(약 5,100km)는 자카르타-인천 직선거리(약 5,300km)와 유사
 - '14년 조코위 정부 집권 이후 도로, 항만, 발전소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국토 연결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이 절감
 -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에 따르면 국가 물류비용이 2018년 GDP의 24%에서 2022년 GDP의 14%로 크게 감소
- 지역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며,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연결성 강조
 - '25년 기준 인터넷 보급 80.7%, 여전히 약 20% 미접속 인구가 존재. 섬·권역별로도 자바 비중이 압도적이고 말루쿠·파푸아는 낮은 편(APJII)
 - 정부는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연결성 가속화”를 디지털 경제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백본·위성·모바일망 확충을 병행 추진 중

□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뜨거운 한류 열풍

-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다시금 K콘텐츠가 각광을 받게 됨
 - 코로나로 인해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드라마 시청이 증가했으며,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인도네시아는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5.7%로 나타나 조사 대상 28개국 중 4위를 기록하였음(2025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으로 한국어 경험률은 43.8%이며, 한국어 학습 능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68.2%로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
 - 한류 콘텐츠의 핵심 소비층은 여성과 30대로 분석되며 드라마, 예능, 영화 순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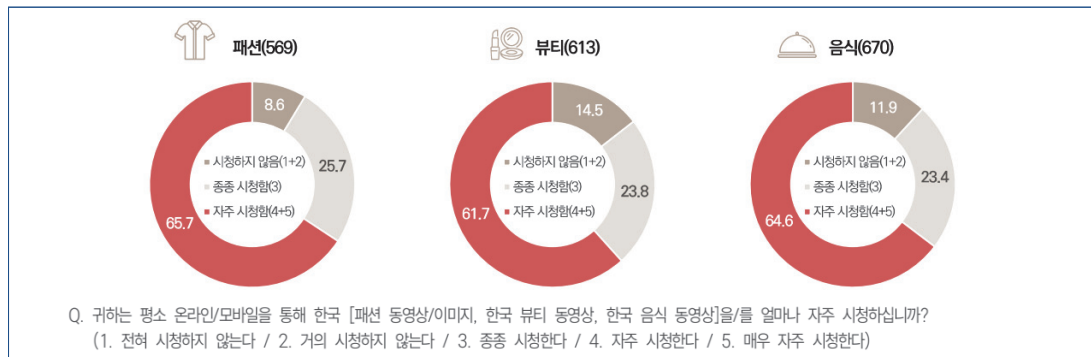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서 뜨거운 한류〉



자료: 2025년 해외 한류실태조사

- 한류를 통해 한국의 패션, 뷰티, 음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

〈한국 패션/뷰티/음식 동영상 시청 빈도〉



자료: 2025년 해외 한류실태조사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인증

- 대표적으로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보건부 의료기기(ALKES) 인허가가 있으며,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 해외 인증 준비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인증명	SNI	BPOM	ALKES/PKRT	HALAL
인증마크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니 국가 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니 식약청)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보건부)	Badan Penyelenggara Jsinan Produk Halal (BPJPH, 인니 할랄보장청)
성격	의무	의무	의무	계도기간 후 단계적 의무화 (식음료: '24년 10월, 의약품/화장품: '26년 10월 부터)
주요 적용제품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등 ('20년) 238개 → ('25년) 322개	식품,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ALKES) 건강보조기구(PKRT)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전반
신청주체	인니 대표법인, 수입사	제품 유형별 유통허가 (PSB)를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의료기기 유통 허가 (IPAK)을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제조사, 수출사
획득소요기간	6개월~13개월	2개월~2년	2개월~1년	21~41일
획득소요비용 (제품 당)	USD 10,000~20,000 (실사비용 포함)	USD 700~5,000	USD 1,000~5,000	USD 15,000~18,000
유효기간	4년 또는 5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재검사 기간 4년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미인정	미인정	미인정	한국할랄인증원 한국이슬람중앙회 BIC 할랄 코리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인니 통합 할랄협력센터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25.9.)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규제강화(2023년 무역부장관령 제31호)
 -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배송되는 상품 중 FOB 기준 단가가 100달러(USD) 미만인 제품은 판매가 금지됨('23.9.)
 - 이에 따라 과거 인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피, 토코피디아)을 활용해 화장품 등 제품을 등록 후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던 방식의 판매가 불가능해짐(FOB 100달러 미만인 경우)

〈주요 인증 : SNI〉

□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는 유통 제품의 품질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하 표준청(BSN)에서 총괄·관리하는 표준 인증제도

- SNI 인증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받기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SNI 인증은 제품에 따라 SNI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 인증품목과 인증 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품목으로 구성
 - 인니 표준청(BSN)이 표준 제정 및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하며,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무역부 등이 SNI 표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 품목 지정권한을 보유(주요 적용제품 :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타이어 등)
 - SNI 인증은 인증기관(LSPo)을 통해 심사 및 공장심사, 제품시험 단계를 거친 뒤 적합성 평가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됨
- SNI 인증은 지정된 정부시험인증기관과 민간시험인증기관에서 진행이 가능
 - 일반적으로 정부시험인증기관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나 상담 및 인증기간이 오래 걸리는 한편, 민간시험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진행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산업부 규정 개정, 강제인증 대상 품목 확대 및 절차 강화
 - 2024년 산업부 규정 12~75호 및 2025년 산업부 규정 2~20호를 통해 지난해부터 SNI 강제인증 대상품목(Commodity)이 확대('25년 6월 기준 총 322개 품목)
 - 새로운 산업부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은 SNI 인증 취득 시 해외 제조사들은 인니 내 업무를 공식적으로 대리하는 현지 대표법인(대표회사) 지정 필요
 - 대표법인은 수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1) 대표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한 도시/성 또는 가장 가까운 도시/성에 소재한 창고가 있어야 하며 (2) 수입물품은 반드시 대표법인 창고에 입고되었다 반출되어야 함
 - 제조사는 하나의 대표법인만 지정할 수 있는 바,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 우려

〈산업부 신규정 SNI 인증 절차〉



자료: Green Nature Farm

〈주요 인증 : 할랄 인증〉



□ 인니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바탕으로 할랄 표준을 선점하고, 글로벌 할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 추진

- 할랄 산업육성을 위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어 인도네시아 영토에 반입, 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함
 - 하람 제품의 경우에는 식약청의 라벨링 표시규정에 따라 “돼지파생재료포함”, 알코올 잔류량 등 경고문 의무 부착 표기되어 유통해야 함
 - '24년 10월 식음료품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었지만, 인니 정부는 현지 소기업 및 영세 기업, 외국에서 수입된 식음료의 경우 최대 2년 할랄 인증 의무를 유예
 - * 인니 중견 및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식·음료, 도축서비스에 대해서는 '24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이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식음료 제품들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도 유예되었음 (최대 '26.10.17. 까지)

품목별 계도기간

품목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품목 유형	계도기간
의류, 헤드기어, 약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자료: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39호

- '23년 11월 한국이슬람중앙회(KMF) 및 한국할랄인증원(KHA)를 시작으로 총 5개의 기관*이 인니 할랄보장청(BPJPH)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 KMF, KH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BIC할랄코리아, 한-인니 통합 할랄협력센터

- 한국 기관별 상호인정이 인정되는 제품 범위는 상이하며, 이는 인니 할랄보장청 사이트 (<https://bpjph.halal.go.id/data/hln/>)에서 확인 가능
- 한국에서 발급받은 할랄 인증서는 BPJPH에 해외 할랄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제품에 인니 할랄 로고와 해외 할랄 로고를 같이 부착해야 함

나. 무역

□ 연도별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 2024년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2,6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
 - 석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팜유, 커피, 고무, 구리 등 다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024년 인도네시아 수입 규모는 2,3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
 - 수입금액은 금 가격이 상승하고, 광석(철광석, 크로뮴 등)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

인도네시아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수출	259	-11.1	266	2.7	185	7.6
역외수입	223	-6.0	235	5.4	156	2.0
무역수지	36	-16.9	31	-13.8	29	5.0
총 교역	482	-8.8	502	3.9	341	52.6

자료: 인니 통계청('25.10.)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순
 - 2024년 기준, 3대 수출국(중국, 미국, 일본)이 전체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하며, 중국 단독으로 23%를 차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국

(단위: 억 달러)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전체	-	2,595	-	2,665	-	1,849
1위	중국	650	중국	627	중국	420
2위	미국	232	미국	265	미국	206
3위	일본	208	일본	207	인도	126
4위	인도	203	인도	203	일본	115
5위	말레이시아	128	말레이시아	125	말레이시아	90
6위	싱가포르	126	싱가포르	122	싱가포르	88
7위	필리핀	110	한국	108	베트남	69
8위	한국	103	필리핀	107	필리핀	69
9위	베트남	75	베트남	95	한국	65
10위	태국	72	태국	77	태국	59

자료: 인니 통계청('25.10.), Global Trade Atlas('25.10.)

-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팜유, 합금철, 석유가스, 구리광 순
 - 특히 석탄과 팜유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금액에 20%에 달해, 국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음
 - * '24년 석탄 및 팜유 국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5% ↓, 10% ↑ (Bloomberg '25년 8월)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 달러)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국가	금액
전체		2,595		2,665		1,849
1위	광물연료	595	광물연료	555	광물연료	295
2위	동식물성 유지	284	동식물성 유지	268	동식물성 유지	230
3위	합금철	267	철강	258	철강	183
4위	전자기기	143	전자기기	150	전자기기	124
5위	자동차 부품	111	자동차 부품	110	자동차 부품	79

자료: 인니 통계청('25.10.), Global Trade Atlas('25.10.), HS code 2자리 기준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순
 - 2024년 기준, 3대 수입국(중국, 싱가포르, 일본)이 전체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상회하며, 중국 단독으로 31%를 차지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국

(단위: 억 달러)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전체		2,231		2,351		1,559
1위	중국	629	중국	727	중국	551
2위	싱가포르	184	싱가포르	215	싱가포르	123
3위	일본	165	일본	150	일본	99
4위	미국	113	미국	120	미국	84
5위	말레이시아	107	말레이시아	109	말레이시아	71
6위	한국	105	호주	104	태국	61
7위	태국	102	태국	97	호주	61
8위	호주	93	한국	93	한국	54
9위	인도	67	베트남	64	베트남	41
10위	베트남	53	인도	56	인도	32

자료: 인니 통계청('25.10.), Global Trade Atlas('25.10.)

-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연료, 기계·보일러,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제품 순
 - '24년 국제 금 가격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면서 금 수입 금액이 77% 증가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억 달러)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국가	금액
전체	-	2,231	-	2,351	-	1,559
1위	광물연료	401	광물연료	406	광물연료	237
2위	기계·보일러	321	기계·보일러	335	기계·보일러	232
3위	전자기기	258	전자기기	270	전자기기	199
4위	철강	114	철강	107	자동차 부품	74
5위	자동차 부품	102	플라스틱 제품	106	플라스틱 제품	68

자료: Global Trade Atlas('25.10.), HS code 2자리 기준

□ 對韓 교역 동향

- 2024년 한-인니 교역액은 205억 달러로, 한국의 전 세계 제 15위 교역국
 - 對인니 수출은 79억 달러(13% ↓)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125억 달러(3% ↑)
 - '24년 對인니 무역수지는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확대됨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3년		2024년		2025 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91	-10.5	79	-13.0	53	-10.8
수입	121	-22.8	125	3.4	84	-12.6
수지	-30	-45.5	-46	53.3	-31	1.8
총 교역	212	-18.1	205	-3.3	137	-1.1

자료: 한국무역협회('25.9.)

- (수출) 합성수지, 휘발유,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과 반도체 등이며, 최근 기타 정밀 화학 원료의 수출 크게 증가(-32.9%)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79.5	-13.0		총 수출	53.0	-10.8
1	합성수지	6.7	17.6	1	합성수지	4.8	-5.5
2	집적회로 반도체	4.8	8.3	2	집적회로반도체	3.6	3.6
3	기타 정밀 화학 연료	3.4	57.9	3	합성고무	2.0	-6.1
4	휘발유	2.9	-40.0	4	기타 정밀 화학 원료	1.7	-32.9
5	합성고무	2.9	34.4	5	편직물	1.7	-12.1
6	편직물	2.6	3.6	6	냉연강판	1.4	-19.0
7	냉연강판	2.4	-15.3	7	자동차부품	1.3	5.8
8	경유	2.3	-33.3	8	화장품	1.2	21.2
9	열연강판	1.8	-16.4	9	아연도강판	1.1	-3.7
10	자동차 부품	1.6	11.3	10	기타석유화학제품	1.0	-13.7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

- (수입) 유연탄, 천연가스, 동광 등 광물자원이며, 인니 현대·LG엔솔 합작공장 배터리 생산·수출의 개시로 축전기 수입 급증(10.3%)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125.6	3.4		총 수입	84.6	-12.6
1	유연탄	25.0	-0.9	1	유연탄	15.8	-15.8
2	천연가스	15.4	-20.3	2	천연가스	6.7	-48.0
3	동광	10.9	-16.7	3	축전기	6.4	168.1
4	축전기	4.9	10,291	4	동광	3.6	-63.5
5	신발	4.4	-6.4	5	신발	3.3	0.4
6	칼라TV	3.3	-2.6	6	기타정밀화학	3.0	62.6
7	직물제의류	3.0	-3.0	7	직물제의류	2.4	3.1
8	기타금속광물	2.8	17,579	8	식물성유지	2.3	-0.1
9	종유	2.7	289	9	칼라TV	2.2	-14.5
10	식물성 유지	2.7	-14.9	10	합금철	2.1	27.6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

□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인니 진출전략 : 제조업 기업 A사(현지 대기업 P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특히 A사 생산하는 제품의 스펙은 인니 현지에서 생산하는 곳이 없는 제품
- 성약 소요기간 : 2년
- 바이어 발굴경로 :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기 전시회에서 최초의 비즈니스 상담 진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A사는 P사에 적극적으로 공장 시험(FAT) 제안, P사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임
 - 인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력 확충 시기에 맞물려 전기 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발굴



성공 사례로 보는 인니 진출전략 : 제조업 기업 B사(현지 E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성약 소요기간 : 6년
- 바이어 발굴경로 : 바이어가 KOTRA를 통해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확인 요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납품하는 과정은 인니 비즈니스 관행상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보다 장기적인 시선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

□ 주요 경쟁국 동향

- 한국의 對인니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기기(HS 코드 85류), 철강 제품(72류), 플라스틱 제품(39류)이며, 중국·일본·베트남이 주요 경쟁국으로 자리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해당 품목에서 인니 수입시장의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중국	40.2	41.8	44.8	49.4
일본	9.2	9.6	8.3	8.2
한국	7.7	7.6	7.7	6.9
베트남	3.6	3.8	3.8	3.6

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전자기기(85류), 철강 제품(72류), 플라스틱 제품(39류) 금액 전체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Global Trade Atlas('25.9.)

□ 인도네시아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동향

- 인도네시아 對 세계 수입 규제는 총 33건(세이프가드 17건, 반덤핑 16건)
 - 주로 플라스틱·고무(9건), 섬유·의류(8건), 철강·금속(6건), 화학(4건) 및 기타(5건) 등 내수 생산이 가능하거나 육성 중인 산업 보호에 대한 조치

인도네시아 무역구제 조치 현황

(단위: 건)

품목	규제유형	반덤핑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섬유·의류		1	1	7	3	8	4
철강·금속		5	0	1	0	6	0
플라스틱·고무		6	3	3	2	9	5
화학		3	0	1	0	4	0
전기전자		0	0	1	0	1	0
기타		2	1	3	0	5	1
총계		17	5	16	5	33	10

자료: WTO 통계, 인도네시아 정부 관보·통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25.8.)

- 한편 인도네시아 對韓 수입 규제는 총 11건(세이프가드 11건, 반덤핑 7건)

인도네시아 對韓 무역구제 조치 현황

(단위: 건)

품목	규제유형	반덤핑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섬유·의류		0	1	4	3	4	3
철강·금속		1	0	0	0	1	0
플라스틱·고무		2	2	1	1	3	3
화학		0	0	1	0	1	0
전기전자		0	0	0	0	0	0
기타		1	1	1	0	2	1
총계		4	3	7	4	11	7

자료: WTO 통계, 인도네시아 정부 관보·통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25.8.)

다. 산업

□ 인도네시아 산업 개관

- 인도네시아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며 도소매업, 농림어업, 건설업 순
 - 매년 제조업, 도소매, 농림어업, 건설업 비중의 합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Q 기준
농림어업	12.4	12.5	12.6	13.8
광산업	12.2	10.5	9.2	8.6
제조업	18.3	18.7	19.0	18.7
건설업	9.8	9.9	10.1	9.5
도소매업	12.9	12.9	13.1	13.0
운송 및 창고업	5.0	5.9	6.1	6.2
정보통신업	4.2	4.2	4.3	4.4
금융 서비스업	4.1	4.2	4.2	4.2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5.9.)

- 한편 제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식음료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의 36%를 차지하며, 화학·제약·전통의약 산업, 석탄·정유 산업 순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제조업 내 세부 비중

(단위: %)

제조업 세부 산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Q 기준
석탄·정유	10.1	10.3	9.6	9.4
식음료	34.5	35.1	36.5	37.2
화학·제약·전통의약	9.9	9.4	9.4	9.8
기초금속	4.7	5.0	5.4	6.1
금속제품·컴퓨터·전자·광학·전기기기	7.9	8.4	8.5	8.1
수송장비	7.9	8.0	7.4	6.7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5.9.)

〈제조업〉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인니 정부는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고도화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지속
 -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GDP 기여도를 올리는 것을 목표
 - * 제조업 GDP 기여율(%) : ('24년) 18.9 → ('29년e) 21.9 → ('45년e) 28.9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수립하고 7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망 제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
 - * 7대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 목표 설정

인도네시아 7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구분	중점 분야	세부계획
첨단기술	자동차	• 전기차 생태계 조성, 원자재·핵심부품 자급화, 현지 생산 유도
	의료기기	• 의료기기 현지생산, 기술이전, 병원 및 의료특구 신설
	제약	• 원료 의약품, 화공약품 현지생산 및 기술이전 유도
	화학	• 바이오연료·플라스틱 등 차세대 석유화학제품 생산
	전자	• 반도체 등 고부가 전자부품 생산능력 배양, 新기술 이전 활성화
노동집약	식품료	• 자동계측, 모니터링 기술 등을 수출용 농산물 가공능력 확보
	섬유·봉제	•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해외 기능성 의류 수요 대응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화학·제약 산업〉

□ 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화학 산업은 정부 우선 육성 사업으로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 화학 산업은 나프타 분해시설 등 주요 설비 및 인프라 부족으로 70% 이상 수입에 의존
 - 인니 정부는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1년 화학분야 로드맵을 구축, 이를 위해 해당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추진

2021-2030 인도네시아 화학분야 개발 로드맵

구분	1차(3~5년) 개발	2차(5~10년)	3차(10~15년)
달성연도	2021년	2025년	2030년
목표	기초 화학제품 수입 대체 30% 이상	합성화학 산업육성, 제품 판매 확대 등	세계 5대 바이오연료 생산회사 육성
주요내용	1. 수입대체를 통한 기초 화학물질 수입 감소 2. 나프타, 올레핀, 아로마핀 등 기초화학물질 생산 확대 3. 석유산업 지원을 위한 합성석유 생산 확대	1. 중간화학제품 생산 확대 2. 합성석유 생산 확대 3. 기초 바이오화학 산업육성	1. 바이오화학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 2. 국내 수요와 수출수요 최적조정 3. 다국적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특별한 역량을 가진 화학기업 육성
주요품목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합성석유, 합성레진, 합성고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 바이오 원료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롯데 케미칼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조성을 위해 39억 달러 투자를 단행(라인 프로젝트), '25년 10월부터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상업 생산 예정

※ 롯데케미칼 라인 프로젝트



라인프로젝트 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한 조코위 前대통령

자료: 롯데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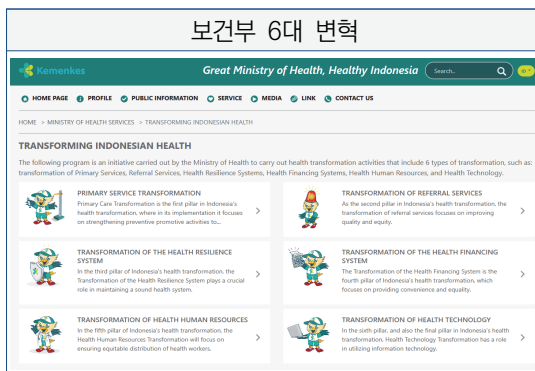
- '22년 롯데케미칼이 자회사 롯데케미칼타이탄과 합작해 추진한 반탄주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내 최초의 NCC 건설 사례로 연간 생산능력은 에틸렌 100만 톤, 프로필렌(PL) 52만 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 톤이며 '25년 10월부터 상업 생산 예정
-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누산타라(LCTN)에 연간 35만 톤의 에틸렌을 10년 간 공급 예정(계약 규모 : 30억 달러)
- 인니 기초화학 기업 아사히마스케미칼(ASC)과 에틸렌 공급을 위한 10년 장기 판매 계약을 체결

□ 제약 산업 동향 및 전망

- 제약 산업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로 정부 우선 육성 산업
 - 인도네시아는 의약품 원료(API)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정부는 API 국산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정책·투자 유치 병행 중
 -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인니 인구 및 소득 증가, 건강보험 시행 등의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 제약 산업은 향후 지속적 성장 전망
- 인니 산업부 및 보건부는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과도한 점을 우려,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강화 추세
 - 보건부는 '6대 변혁'(보건안보·산업자립 포함)을 축으로 현지 생산·공급망 자립을 강조
 - 공공조달(e-Katalog v6) 체계가 '25년 1월부터 전면 가동됨에 따라, TKDN(국산가치) 등 현지화 지표 연계가 강화되어 현지 생산·소싱 유인이 확대
- '25년 정부 공공의료 예산 축소에 따른 저가 의약품 수입 증가 추세
 -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 시행에 따라 보건소 및 공공병원 예산이 축소
 - 공공의료 예산이 축소되면서 중국·인도산 저가 의약품 수입 증가 우려
- '26년부터 의약품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가 시행되며, 할랄 인증 의무화 조치는 논할랄 수입 제품에 대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 제약 산업〉



자료: 보건부, Pusdiklat Pemda



〈섬유산업〉

- 섬유 봉제 산업은 정부 7대 우선 육성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축세
 - 섬유·봉제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니는 세계 10대 섬유 봉제 산업국
- 2025년 섬유 산업은 ▲ 저가 수입품 급증 ▲ 내수 위축 ▲ 글로벌 수요 감소가 동시에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가중
 - 2024년 무역부 규정
 - 제8호 시행으로 섬유·의류 일부 품목에서 Pertek(기술적 고려사항)이 폐지되며 저가 수입품 증가, 특히 중국산 수입 확대 추세

인도네시아 對중국 섬유제품 수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3.3	-12	48.4	12	33.5	10

주: HS code 50~64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5.10.)

- 인니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와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의류 내수 시장 부진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글로벌 바이어들의 발주가 지연·축소되며 의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줌
- 그 결과 인니 기업들이 생산 가동률을 축소 및 공장을 폐쇄하면서 대규모 해고 사태를 경험
 - '24년 8월~'25년 2월 사이 섬유·신발 산업에서 총 93만 명이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상실한 것으로 집계됨(누산타라 노동조합총연맹)
- 단기적으로 정부는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현지 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 체계적 직업훈련 시스템을 통한 노동력 전문성 제고가 필수임을 지적

라. 투자

□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4년 외국인직접투자는 600억 달러(19% ↑)로 사상 최대치 기록
 - 다운스트림 산업육성 정책으로 니켈 등 광물 부문에서 FDI가 크게 증가

인도네시아 FDI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투자금액	456	46.7	503	10.3	600	19.4	272	-3.2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5.9.)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제조업에 대한 FDI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차 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추세
 - 기초금속에 대한 FDI가 136억 달러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며 광업(8.6%), 제지 및 인쇄 산업(8.0%), 운송 및 창고업(7.8%), 화학·제약 산업(6.9%) 순
- 인니 투자부는 신재생에너지, 다운스트림 산업 등 9개의 전략 투자유치 산업 선정, 향후 국가 산업발전과 FDI 유입을 견인할 핵심 유망 분야로 육성할 계획

〈2024년 전략 투자유치 산업〉

 New Renewable Energy - Total potential: 3,687 GW. Current installed capacity: 13.1 GW. - Hydro: 95 GW, Solar: 3,294 GW, BioEnergy: 57 GW, Wind: 155 GW, Geothermal: 23 GW, and Tidal: 63 GW.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Industry. Potential to enter the global supply chain (Global Value Chain/GVC).
 Downstreaming industry - Potential investment from 28 commodities 2023-2040 is USD 618 billion. - Nickel, Copper, Bauxite, Tin, Petrochemical, Fertilizer - CPO, Sugarcane, Seaweed (Cooking oil, Oleofood, Biosolar, Bioethanol)	 Healthcare - Pharmaceutical industry, medical devices, and healthcare services. - Special Economic Zone for Health: Sanur, Bali.
 Food security - Rice Estate in Marauke Regency, South Papua - Sugar and Bioethanol in Marauke Regency, South Papua.	 Nusantara Capital City (IKN) - Housing, education, hospital, hotel, and others - Tax Holiday for 30 yrs, ease of licensing, HGU for 95 years & can be extended for the same period.
 Semiconductor Availability of raw materials for the upstream semiconductor industry, namely Silica, Gallium, Copper, Bauxite, and Gold	 Education and Vocational - Education (from Preschool to University) - Vocational Education -> Super Deduction Tax 200%. - Special Economic Zone for Education -> Location: BSD, Banten.
 Digital Economy & Data Center - Indonesia's digital economy market is projected to reach USD 210-360 billion by 2030, with a growth rate of 5.9% (2024-2029). - Current installed capacity is 430 MW from a potential of 2.7 GW.	 9 Investment Priority Sectors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5.6.)

□ 주요 국가(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33%), 홍콩(14%), 중국(14%), 말레이시아(7%), 미국(6%) 순
 - 중국계 자본(싱가포르, 홍콩, 중국)이 전체의 FDI의 60%를 상회

국가별 외국인 FDI 현황

(단위: 억 달러)

순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전체	-	456	-	503	-	600	-	272
1위	싱가포르	133	싱가포르	153	싱가포르	201	싱가포르	88
2위	중국	82	중국	74	홍콩	82	홍콩	46
3위	홍콩	55	홍콩	65	중국	81	중국	36
4위	일본	36	일본	46	말레이시아	42	말레이시아	17
5위	말레이시아	33	말레이시아	41	미국	37	일본	16
6위	미국	30	미국	33	일본	35	미국	16
7위	한국	23	한국	25	한국	30	한국	10

주: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통계 자료로 한국 통계원(수출입은행) 수치와 상이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5.9.)

□ 인도네시아의 對韓 투자 현황

- '24년 인도네시아의 對韓 투자액 8,400만 달러 수준
 - 서비스업 투자가 전부이며, 그 중 부동산 투자액이 98%를 차지

□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 '24년 업종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FDI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2%, 금융 및 보험업이 26%, 광업 10%, 건설업 4%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1차 금속 제조업(비철금속)이 제조업 전체의 33%, 판유리 제조업이 15%, 화학물질 및 제품이 10%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금액	15	-18	23	52	12	-47	8	0
신규 법인 설립 건수	78	20	96	23	111	16	100	144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9.)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가구 기업 A사, 인니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사무 가구 전문 브랜드인 A사는 국내 유수의 기업의 해외 진출 파트너로 활약한 바 있음. 향후 동남아 시장을 타겟하기 위해 인니 시장진출
- (성공 사례) 국내 대기업 해외 진출 시 오피스 가구 파트너로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통한 안정적 진출
- (시사점) 가구처럼 규제(산림청 허가 등)와 인증 절차가 많은 품목은, 현지 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 한국 기업들은 진출 전 단계에서 현지 규제·행정 리스크 관리에 유의 필요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서비스업 S사, 인니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S사는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이 가능한 저작 도구를 개발하고,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성공 사례) 현지 교육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인니 시장 진출
- (시사점) 잠재 바이어 발굴을 위해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인도네시아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 것이 주요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행정 처리에 있어 불확실성 존재
 - 투자부나 중앙정부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인허가를 쉽게 승인해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은 지방정부 소관
 - 지방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투자 결정 후에 불확실성이 존재
 - 급속도로 상승하는 현지 숙련 인력·대졸자 임금에 따른 채용 애로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자카르타의 '25년 최저임금은 540만 루피아(약 50만 원) 수준이나 이는 국가 기초 교육만을 이수한 인력인 경우이며 학사 학위를 보유한 신입사원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만 생각하고 현지 진출하는 경우 적합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인니 정부는 '21년 옴니버스법 발표를 통해 과거 투자 금지·제한 업종만 나열하던 네거티브 리스트(PR 44/2016)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 투자 허용·장려 업종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R 10/2021) 체제로 전환
 - 인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시스템(OSS)으로 일원화하고, 고용 유연성 강화
- * 투자 금지 업종 : 마약, 도박 및 카지노, 멸종위기 생물 어획, 자연 산호 및 해양 암석 이용, 화학무기 제조 산업, 산업용 화학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주류 산업

2. 유망 산업

가. 보건 의료 산업

□ 성장 가능성이 높은 프라보워 정부의 중점 관심 산업

- 인니 의료기기 시장은 2028년까지 연 평균 9.7% 성장을 통해 6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Modor Intelligence)
- 인도네시아 의료 산업의 공급 기반은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전망
 - 보건 의료 산업은 프라보워 정부의 중점 육성 분야로, 정부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의료분야 예산(억 달러) : ('24년) 115 → ('25년) 134 → ('26년e) 152(인니 재무부)
 - 신정부의 핵심공약은 빈곤·질병 등 기초생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건강 수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추진, 향후 정책적 수혜 예상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단위: 억 달러)

사업명	예산	주요 내용
결핵 퇴치 프로그램	1.3	전국적 결핵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
건강검진 프로그램	1.6	총 5,220만 명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시행
고품질 병원건설	1.7	지역 수준의 D급 병원을 C급 병원으로 업그레이드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수요 측면에서 민간의 수요와 병원·의료기기 투자가 동반 확대될 전망
 - '24년 국민건강보험(Jaminan Kesehatan Nasional, JKN)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98%를 돌파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수요 증가
 - 인니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발표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 산업 관련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 도모

주요 개정 사항

조치사항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 확대	• (이전) 비-ASEAN 투자자의 최대 지분 67%, ASEAN 투자자 75% • (이후) 병원 부문에서 100% 외국 투자 허용
외국인 의사 면허 완화	• 외국인 의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기관에서 적응기간을 통과하면 규정상 진료 • 면허를 받을 수 있음 *기본 2년 동안 진료 가능, 최대 1회 연장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추진	• 발리 사누르를 의료특구로 지정, 외국인 의료진을 위한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 장비에 대한 세관, 재정 지원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한국으로부터 호흡기기, 촬영장치, 영상진단기기 분야 수입은 증가 추세

인니 對한국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HS Code	품목명	2022년	2024년
9018	의료용 기기류	42,459	42,927
9019	호흡기기	1,314	2,004
9020	마취기기	3,082	1,488
9021	정형외과·보철기기	3,999	5,690
9022	방사선 진단·치료장비	4,663	7,152

자료: Global Trade Atlas(*25.6.)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인도네시아 의료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동향
Siloam Hospital Groups	• 1996년에 설립된 Lippo 그룹 계열사로,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 병원 네트워크 중 하나 • 전국 23개 주, 30여 도시에 41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병상은 4천 개 이상이며, 일 평균 가동률 69% 수준
Mitra keluarga	• 1989년에 설립된 민영 병원 그룹으로, 자카르타 및 주요 대도시에 총 30개 병원을 운영 중 • 운영 병상은 약 4천 개, 평균 가동률은 55% 수준
Mayapada Healthcare Group	• 2008년에 설립된 Mayapada 그룹 계열사로, 인도네시아 내 주요 민영 종합병원 네트워크 중 하나 • 자카르타, 보고르, 탕게랑 등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7개 병원과 총 861개 병상을 보유, 평균 가동률은 47% 수준
Jayamas Medica Indsutri	• 1992년 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대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하나 • OneMed 브랜드를 통해 전국 병원·약국·클리닉에 제품을 공급하며, 23개 지사·창고와 9개 영업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유통망을 보유
Omni Hospitals	• 1972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민영 병원 그룹으로 2021년 Omni Hospitals에서 EMC Hospitals로 브랜드명을 변경하였으며, 자카르타 및 주변 지역에 병원을 운영 • 총 8개 병원과 1천여 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 평균 가동률은 45% 수준
Kalbe Farma	• 1966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회사로, 의약품·건강보조제·의료영양 등 다양한 제품 생산 • 현재 49개 이상의 자회사와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14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 71개 지점을 통해 운영.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40여 개국에 수출
Bundamedik	• 1973년에 설립된 민영 병원 그룹으로, 대표 병원은 자카르타의 Bunda 병원 • 자카르타 RSIA Bunda Jakarta를 포함해 10개 종합·전문 병원, 1개 여성·아동 클리닉, 그리고 전국 5개 진단검사실을 운영

자료: 각 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종합

나. 농림어업

□ 정부 정책의 집중적인 수혜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 확대 전망

- 농림어업의 GDP의 12.6%를 기록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체 취업자의 28%가 종사
 - 인니 농업시장은 '23년 2,230억 달러에서 '28년 3,360억 달러로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유로 모니터)

〈인도네시아 농업 시장〉



자료: 인도네시아 언론사(Ruangguru),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편집

- 인니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언급,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경주
 - 정부는 '26년 식량안보 사업에 103억 달러 배정, 현지에서는 글로벌 경제 영향 대응에 있어 인니 정부가 식량 주권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
 - 농업부는 주요 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경작지를 확대하고, 단위 면적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 인프라 확충
 - * 정부는 중기적으로 옥수수, 콩, 사탕수수 등 자급 작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후 커피·코코아 등 수출 작물까지 포함할 계획

연도별 식량안보 예산

(단위: 억 달러)

2024	2025	2026
71	97	103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Pupuk Indonesia	1970년에 설립된 국영 비료 지주회사로, 인도네시아 최대 농업용 비료 생산 및 공급업체 - 국정부의 식량 자급 정책에 따라 비료 가격 안정화 역할 수행 - Pusri, Petrokimia Gresik, Pupuk Kaltim, Pupuk Kujang 등 주요 국영 비료 회사를 산하에 보유 - 연간 생산능력은 약 1,450만 톤에 달하며, 전국 농가와 대규모 농장에 공급 -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아체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주요 생산기지를 운영
Japfa Comfeed Indonesia (JPFA)	1971년에 설립된 축산·사료 전문기업 -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료 생산, 가금류 번식, 상업적 축산, 양식업, 육우 사육 및 가공식품 생산까지 수직계열화된 사업 모델을 운영 - 현재 사료 공장 13곳, 옥수수 건조시설 9곳, 가금류 도축장 11곳, 냉동창고 7곳, 육가공 공장 3곳, 낙농 가공시설 1곳, 소고기 관련 시설 2곳 등 총 46개 이상의 주요 생산시설을 운영
Charoen Pokphand Indonesia	- 태국 CP 그룹 계열사로, 1972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사료, 가금류 사육 및 가공, 식품 가공 등 통합 축산업을 운영 - 주요 사업 : 사료 생산, 육계·산란계 사육, 가금류 가공식품 - 전국에 사료 공장, 옥수수 건조 및 저장시설, 육계 농장, 종계 농장, 부화장, 도축장, 식품 가공 공장 및 유통망을 보유
Habibi Garden	2015년에 설립된 AgriTech 스타트업으로, IoT 기반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진 - 비전 : 인도네시아 농업 4.0 구현, 1,000개 디지털 농촌 창출, 밀레니얼 세대의 농업 참여 확대 - 주요 제품군으로는 HabibiGrow, HabibiCooling, HabibiClimate(일반/Pro/Station), HabibiDripTape, HabibiCam 등이 있으며, 센서·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토양·수분·기후 관리 최적화 - IoT 센서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지원

자료: 각 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종합

- 스마트팜 등 현대 기술 기반 농업에 대한 협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
 - 스마트팜 기술은 단위 면적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안정성*을 대응하는데 효과적
 - * '23년 엘니노로 인해 인니 쌀 생산량이 급감했으며, '24년 3월까지 쌀 수입량이 180만 톤을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로이터)
- 중기개발계획(RPJMN2025~2029)에 따르면 “전 국민 식량접근성 보장”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지역별 농업 취약성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향후 지역별 농업 인프라 개선 속도에 편차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

〈2024 인도네시아 식량 안전성 및 취약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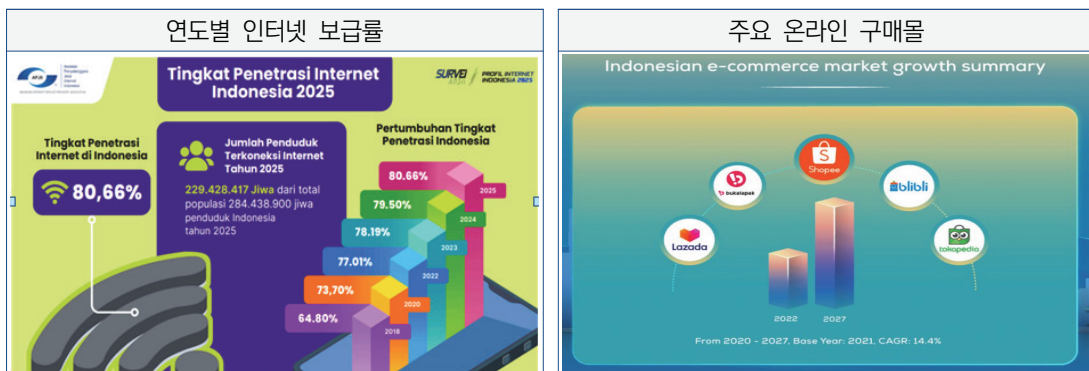
자료: 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편집

다. 디지털 인프라

□ 군도 경제를 단일 시장·행정권으로 통합하는 디지털 인프라 개선은 정부의 핵심 의제

- 인터넷 보급률은 80.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
 - 다만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지역별 불균형이 존재하며, 자카르타 인터넷 보급률은 85% 수준인 반면 말루쿠 및 파푸아는 69%에 그침
-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80년대 이후 출생인 MZ 세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4~'28년 동안 연평균 9% 성장할 것으로 전망(Capillary)
 - '24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는 전체 소매판매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이브 쇼핑이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성장하는 디지털 인프라〉



자료: APJII, Capillary

- 정부는 “디지털 인니 2045 비전”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
 -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4대 핵심 축을 설정하여 정책 역량 집중



디지털 인도네시아 2045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축

- 디지털 인프라 확충
 - 전국에 걸쳐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망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디지털 정부 구현
 -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
- 디지털 경제 활성화
 - 핀테크, 이커닝,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디지털 사회 구축
 -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

자료: 인도네시아 한인 포스트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PT Integra Inovasi Indonesia	•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둔 IT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 제공 • 주요 서비스 : 디지털 정부 솔루션 및 스마트 시티 솔루션
PT Telkom Indonesia(Tbk)	•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으로, 통신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전자 정부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를 통해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최근 인공지능 개발로 인해 급증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외 데이터 센터 용량을 500메가와트(MW)로 늘리는 확장 계획 발표 • 주요 서비스 : 통신 서비스, 통합 데이터 센터 솔루션 등
PT XL Axiata(Tbk)	• 인도네시아 주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로, 모바일 통신,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 및 디지털 솔루션 제공 • 주요 서비스 : 통신 서비스, 디지털 공공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시티 솔루션
PT Datacomm Diangraha	•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IT 솔루션을 제공. 주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통신 인프라 구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 : 네트워크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솔루션
PT Aplikasi Lintasarta	• 인도네시아 IT 서비스 제공업체로,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IT 솔루션을 제공 • 주요 서비스 :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정부 솔루션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언론사 종합

- 특히 정부는 조세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통합 시스템인 “코어택스”를 ’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 중
 - e-Faktur, e-Bupot, e-Filing을 통합해 전자상거래·전자결제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하며,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
 - 정부는 코어택스를 활용하여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6년 세수 목표액을 전년 대비 13.5% 높게 설정
- 인니 사이버 보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향후 협업 유망 분야
 - 사이버 보안 시장은 ’24년 14억 달러에서 ’29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하여 ’29년에는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Modor Intelligence)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안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한국-인도네시아 간 적용되는 다수의 무역 협정 적극 비교·활용

- '25년 기준 한-인니 간 3개의 무역협정이 적용 중이며 각 협정별 관세철폐 품목·세율이 상이한 바, 수출 품목에 가장 유리한 무역협정 선정 필요

〈한-인도네시아 간 적용되는 무역협정〉

✓ RCE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경제규모 인구 23억, 역내 GDP USD26조로 아시아 대양주를 아우르는 초거대 경제 블록 추진경과 '22.1.1.부 발효, 한국은 2.1.부 합류, 인도네시아는 '23.1.1.부 합류
✓ 한-인니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경과 '17.11월 양국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9.11월 한-인니 CEPA 협상 최종 타결 '20.12월 한-인니 CEPA 정식서명 / '23.1.1. 발효 의의 신남방정책발표('17) 이후 아세안 국가와 최초 양자 FTA
✓ 한-ASEAN FT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가입국 ASEAN 10개국, 한국 등 총 11개국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특히 양자 무역협정 한-인니 CEPA 발효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 스프링(5%), 기계부품 베어링(5%), 섬유 의류(5%) 등 관세 즉시 철폐, 수혜 품목으로 분류되어 왔음
 - 자동차 부품의 경우, '24년 인니 자동차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 증가
- * 고금리가 지속되며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 '24년 인니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86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25년 판매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인니 자동차 공업 협회)

연도별 자동차 부품 수출금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수출금액	71,373	147,998	143,648	159,831
증감률	57.6	107.4	-2.9	11.3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시행
 - EODES는 한-인니 세관 간 IK-CEPA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종이 서류 없이 전송 가능
 - '23년 1월 e-Form IK-CEPA 발급 개시, '24년 3월부터 한-인니 간 EODES 본격 가동
 - 신속한 확인·검증이 가능해 통관이 안전해지고, 위·변조 위험 최소화 및 비용 절감 기대

□ (G2G) 한국-인도네시아 간 기후·환경 협력 강화

- 한국과 인니는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양국 협력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부 간 합의를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25년 4월 환경부 차관은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을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후속 사업을 연계하여 국내 녹색기업의 인니 진출 지원을 목표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이며, 양국은 환경보호, 물 관리·보건위생, 교통, 공공 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기후 환경 관련 주요 ODA 사업

-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
 - KOICA 시범사업으로 누산타라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추진. 24~25년 동칼리만탄 세파쿠 지역에서 진행된 SPAM Sepaku 프로젝트가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인프라 현대화에 기여
 - 발리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
 - '24년 발리 주정부는 한국 환경부로부터 전기버스 10대와 충전 인프라를 무상 지원. GGGI 참여로 '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할 예정
 - 덴파사르 스마트 물 관리 시범사업
 - '24년 덴파사르시는 K-Water와 협력해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사업 진행. 서덴파사르 지역에 총 10km 상수도관 교체와 구역 유량계(DMA) 5대 설치를 통해 누수 저감과 실시간 수압·수량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
-
- '25년 8월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현지 발주처와 네트워크 구축, 물 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특히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환경부와 협력회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탄소 배출권 인정 문제* 논의
 - * 논의 안건 :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114MW)과 LX인터내셔널이 추진하고 있는 하상 수력발전사업(41MW)
 - 이미 '24년 6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특히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한국 환경부와 MOU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실시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탄소 배출권이 인정되면 국내기업의 인니 재생에너지 시장진출이 한층 확대 전망

- '25년 8월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인니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양국 공동의 관심 사항인 디지털,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 분야와 방산, 식량안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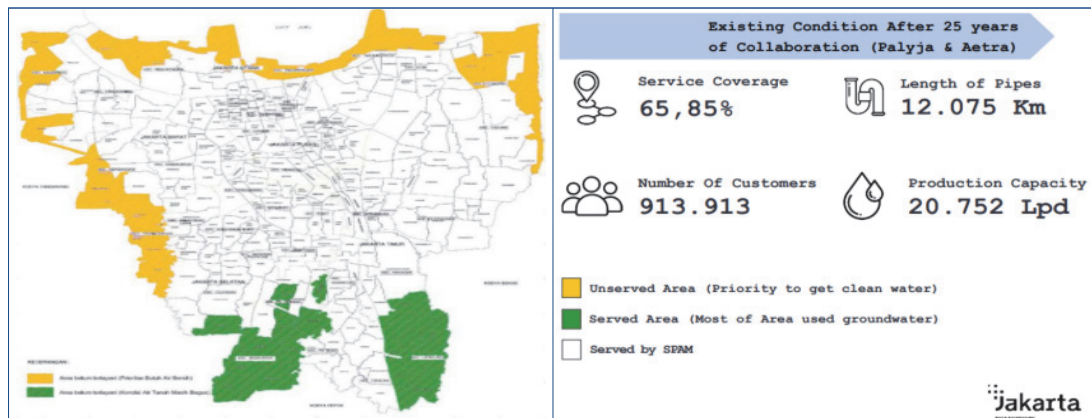
나. 프로젝트

〈수처리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수처리 산업 현황

- 군도 국가의 특성상 각 지에 분포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4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관로를 통한 상수도 공급률은 19.7%에 불과함
 -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에도 상수도 공급률이 70% 하회하는 낮은 수준
 - 자카르타 주민들은 상수도 대신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하수도 사용이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
 - * 자카르타 주민은 생활용수의 약 90%를 지하수에 의존 중(KBS “세계는 지금” '23년 7월)
 - 낮은 수도 요금 정책과 누수 등의 문제로 설비투자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

〈'23년 자카르타 상수도 공급현황〉



자료: 자카르타 상수도 공사(PAM Jaya)

- '25년 기준 인니 전역에 총 155개의 하수 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전체 가구 수(약 7,060만) 대비 하수처리장 연결 가구는 약 27만 가구에 불과하여 보급률이 매우 낮음
 - 생활하수의 상당 부분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며, 일부는 다시 지하수로 유입되어 추가적인 오염을 발생시킴
 - 인니 정부는 중앙 집중식 생활하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카르타 및 인근을 15개 구역으로 구분

□ 인니 정부의 수처리 산업 인프라 개선 의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처리 인프라 확충을 사회기반 서비스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
 - 인니 정부는 국가 장기계획인 “골든 인도네시아 2045” 비전 아래 ’45년까지 관로를 통한 상수도 공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 프라보워 정부는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25-2029)에서 물 안보를 핵심 의제로 규정, 기후 변화 대응과 연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포함
-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댐 재건, 1인당 물 저장 용량 확대, 관개시설 복구 등 사업 추진
 - 자카르타 지하수 사용 전면금지(2030년 시행 예정)와 연계하여 대체 수원, 정수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조
 - 자카르타 전역을 15개 구역으로 나눈 Jakarta Sewerage System(JSS) 구축 추진
 - 장기적으로 2030~2050년까지 10개 이상 추가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
- 정부 예산 효율화 조치로 인프라 예산 감소, 민간 부문간 협력(PPP) 사업 촉진 전망
 - 프라보워 정부는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 무료 건강검진과 같은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 약 25조 원을 재조정
 - 특히 인프라 사업에 관련된 정부 부처인 공공사업부 예산은 ’25년 70% 삭감됨
 - 향후 정부 재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발주가 아닌 민간투자 유치에 강조할 것으로 전망



성공 사례 : S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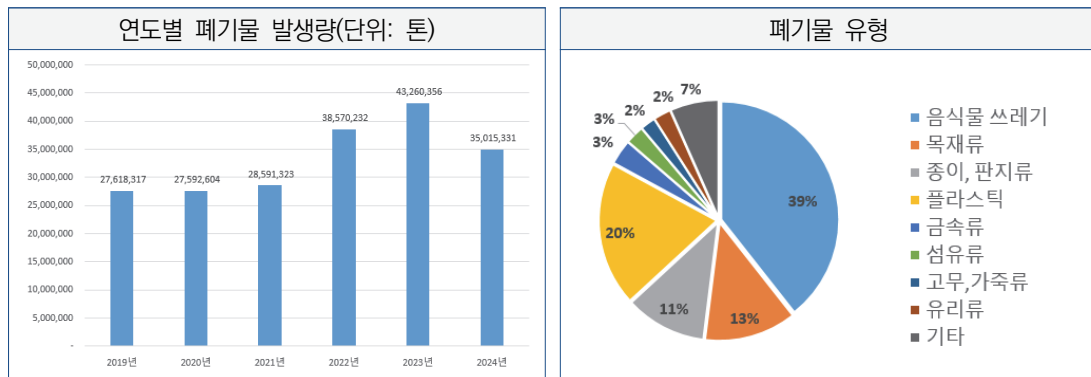
- S사는 고도정수, 해수 담수화 등 각종 수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액체 여과 필터부터 기체를 여과하는 필터에 이르는 멤브레인 필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19년 인도네시아 수방시와 짜아썸 정수장 사업 본계약 체결, ’21년부터 본격 가동 시작
 - 짜아썸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인근 지역 약 10만 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수방시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25년간 운영 후 수방시에 기부 예정
- ’22년 S사와 반둥바랏군은 인도네시아 서부 반둥바랏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처리 플랜트 및 폐수 처리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 반둥바랏 군수는 S사가 수방시 짜아썸 정수장을 건설·운영한 실적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신뢰가 MOU 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언급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련 현황

- '24년 발생한 폐기물은 3,501만 톤으로 ASEAN 1위(국가 폐기물 처리 정보(SIPSN))
 - * SIPSN 통계는 지자체가 입력한 폐기물 기준이며 실질적인 전국 확정 폐기물은 연 7,000만 톤 수준
 -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의 약 39%를 차지하며, 플라스틱(20%), 목재류(13%) 순

〈인도네시아 폐기물 현황〉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 폐기물 처리 정보(SIPSN)

- 전체 폐기물 중 39% 정도만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의 다수는 노천 매립(Open Dumping) 방식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노천 매립 방식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지하수·하천 오염(침출수 유출), 메탄 등 온실가스·악취 확산, 화재·사면붕괴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
- 인도네시아 정부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30% 줄이고, 처리량을 70%로 늘리며, 해양쓰레기 70% 감소율을 달성을 목표
 - 이를 위해 폐기물 은행(Waste Bank) 프로그램 도입, 마을 단위로 쓰레기를 분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주도해 관리하고 있음
 -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약간의 돈으로 바꾸어주는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독려
- 인니 환경부는 2029년까지 폐기물을 100%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중
 - 오픈 덤핑 매립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핵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설정	-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25~2029)에 “2029년 까지 100% 폐기물 관리” 명시 ‘25년 6월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조정회의(Rakornas) 개최, 전국 지자체·산업계 총동원 체계 구축
오픈 덤핑 전면 중단	‘25년 3월 오픈덤핑 매립지 343개 폐쇄, 위생매립(sanitary landfill) 또는 관리형 매립(controlled landfill)로 전환 촉구
성과관리·데이터 고도화	SIPSN 대시보드 구축, 연간·권역별 폐기물 발생/감축/처리율 공개
지방정부 참여도 확대	- 지방 정부 예산(APBD)의 최소 3%를 폐기물 관리와 환경 지속가능 프로그램에 배정 - 예산 활용 우선순위 : 분리배출 선별(MRF)·재활용 체계 구축, 위생매립 전환, 불법투기·노천소각 단속 강화, 대국민 교육·캠페인 추진, 디지털·원격감시 등 현대적 기술 도입 -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아디푸라(Adipura) 제도 개편 - APBD 3% 이상 배정, 충분한 인력·시설, 위생매립(침출수·메탄 처리 포함) 운영 도시에 높은 인센티브 제공 방침(세부 재정 인센티브는 연도별 고시 예정) - 개선하지 못하는 도시는 더러운 도시(Dirty City)로 공개 지정, 디스인센티브 부여
폐기물-에너지화	- 폐기물-에너지 설비 건설 가속화를 위해 2018년 대통령령 제35호 개정안을 마련 중 - 개정안에는 국가예산 지원, 인허가 신속화, 폐기물 발전 전력의 구매 보장 등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포함될 예정
대중 캠페인 강화	배출원 단계에서의 분리·관리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교육 실시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 향후 한-인니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폐기물-에너지화(WtE) 프로젝트

- 인니 정부는 폐기물-에너지 인프라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중
 - 기존 3개의 대통령령을 대체하는 작업을 통해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목표
 - 현재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력 요금을 인상(최대 22센트/kWh)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국부펀드 다난타라, WtE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적극 검토
 - 인니 국부펀드인 다난타라는 인니 전역에 걸친 33개 WtE 발전소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 규제 개정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일부 WtE 사업은 Danantara 주도로 신속 추진 중이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18개월 내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음



A사, 인니 정부와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협력 방안 논의

- 인도네시아 인프라 및 지역개발 조정장관은 A사 대표진과 만나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 인도네시아 정부는 A사와의 협력을 통해 노천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문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보 등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인니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도 부합하는 프로젝트로, 주재국 정부의 정책적 수요 반영 필요

다. 공급망(자원개발)

□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광물과 농림수산자원이 풍부한 원자재 부국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42%)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
-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광물산업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중 하나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					주요 광물 사용처		
광물	가공품	사용처					
니켈	황산니켈, 페로니켈	전기차 배터리, 가전제품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듀랄루민	비행기 동체, 전기차 차체					
주석	인동 주석 산화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금	금합금	반도체, 전자부품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USUG 2025, 닛케이 아시아

□ 인니 정부는 광물 수출금지 정책 시행하여 자국 내 제련소 건설 유도

- 단순 자원 수출 구조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09년 법령(정부령 4호)을 통해 원자재 형태 광물 수출금지가 '14년부터 시행
 - 해당 법령을 통해 자국 내에서 광산 제품 가공 및 정제 의무화
 - '17년 일부 광물 원자재가 수출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지만 5년 이내 해당 광물 제련소를 건설해야 하는 조건이 붙음(조건 미이행시 광물 수출 허가 취소)
 - 니켈과 보크사이트는 원자재 형태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현지 제련소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주요 원광 수출금지 정책 현황

- 주석('02년 수출금지), 니켈('20년 수출금지), 보크사이트('23년 6월 수출금지) 등

- 조코위 前정부는 광물 수출금지를 통해 (1) 전기차 배터리 산업육성 기반 마련, (2) FDI 유입 확대 (3) 중간 제품 수출 증가 성과 달성

광물 수출금지 정책 주요 성과

구분	주요 내용
다운스트림 산업육성	• 니켈 수출금지를 계기로 제련·정제를 거쳐 배터리·전기차 등 다운스트림 산업으로 저변 확장
FDI 유입 확대	• '24년 FDI 600억 달러로 '20년 대비 127% 증가 • 기초금속 '24년 135억 달러로 '20년 대비 109% 증가
중간 제품 수출 증가	• 니켈 및 제품(HS 75) 수출액 '20년 8억 달러에서 '24년 80억 달러로 10배 증가
일자리 창출	• 니켈 제련소 2개('16년) → 44개('24년)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한국 기업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원자재에 대한 투자 확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공급망 투자 관련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 '24년 11억 달러 투자하여 Karawang 지역에 배터리셀 공장 완공
포스코 홀딩스	• 니켈 제련공장 착공('23년, 4억 달러)
포스코인터내셔널	• 인도네시아에 3만 헥타르(ha) 규모의 팜 농장을 운영하며 연간 약 25만t의 팜유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연간 50만t 규모의 팜유 정제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5년 내 준공 목표
LX인터내셔널	• '10년 인니 팜 농장을 인수하며 현지 진출, '25년 현재 3개의 팜 농장 운영중 • '12년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GAM) 60% 인수 • '23년 니켈 광산(AKP) 지분 70% 인수, 생산 물량 전량에 대한 인수 권한 확보
에코프로	• '25년 1월 인니 그린에코니켈 지분 28% 인수, 자회사로 편입 • 니켈 제련소 "QMB" 및 "메이밍"에 투자하여 각각 지분율 9% 확보

자료: 언론사 종합

□ 광물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 한국 기업들에게 잠재적 리스크 요인

- 광물 수출금지가 시행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광산 및 제련 시설에 집중 투자, 현지에서 중간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 '23년 금속 부문에 대한 FDI의 약 60%는 중국계 자본이며,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능력의 약 75%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
 - '25년 6월 중국계 CATL 자회사 CBL은 현지 기업과 협력해 인니 배터리 통합 프로젝트 착공. 총 59억 달러 규모로, 니켈 채굴·가공부터 배터리 소재·제조 및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배터리 가치사슬 전체 구축을 목표로 함

□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다양한 정부 정책 자금 활용 필요



경제안보 핵심품목 안정화를 위해 운영중인 공급망 안정화 기금

-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란?
 - 경제안보상 중요한 핵심산업의 국가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24년 9월 공식 출범했으며, 첫째 4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데 이어, '25년부터는 연간 10조 원 규모로 확대 운영 예정
-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운용 목적은 (1) 국가 전략적 중요 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2)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위기 대응 역량 구축 (3) 해외 공급 의존 리스크 저감 및 국내 산업 기반 강화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핵심 경제안보 품목이나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선정되어야 함
- 금융 지원 방식은 대출, 채무보증, 투자이며 대출은 자금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기술자금 ▲투자자금 ▲구매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되며, 저리로 지원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치열해지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감안, 정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 필요
 - 기업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對정부 의견 제시를 강화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이 요구됨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60
2. 진출전략	62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민간 투자 유입 활성화
- 신정부는 무상급식, 무료 건강검진 등 복지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 한-인니 CEPA로 무역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자국 산업 고도화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Economic)

- '25년 경제 성장은 민간 소비(C)와 민간 투자(I)가 주도
- 인니 제조업은 중국 경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
-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
-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육성에 주력



사회문화(Social)

- 세계 4위 규모의 인구와 71%에 달하는 생산가능인구로 인해 인구 보너스의 최고 구간을 통과 중임
- 젊은 인구 비중 증가로 디지털 기술 확산과 새로운 소비패턴이 나타날 전망
- 전체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도이며, 할랄 문화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기술(Technological)

- 정부의 강한 의지로 디지털 산업육성이 추진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24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133개국 중 54위(7단계 ↑)를 기록
- 인니 정부의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AI 로드맵 준비 중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첨단 산업분야에서 한국 기술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음
- 우수한 디지털 역량 및 기술 보유

약점(Weakness)



-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 현지화 및 로컬 파트너십 부족

기회(Opportunity)



-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제고
- 한-인니 양국 정부 간 다양한 협력 모멘텀

위협(Threat)



-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육성을 위한 수입대체 기조 지속
-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신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 분야 우선 진출 추진
- 한류를 활용한 생활소비재 유통 및 판매 경로 다각화



정부 간 사업을 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 테스트 진행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양국 정부의 협력 모멘텀을 활용하여 신산업 핵심기술 표준 선점
- 양자 및 다자 FTA 활용, 가격 경쟁력 제고
-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시장 진출 고려



현지 진출/현지화 강화
(OEM 등)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로컬 글로벌 챔피언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적극 활용
-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시장 진출 고려



현지 로컬 챔피언과의
협업 강화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현지 유망 파트너 발굴·협력 지속
- 인니 수입대체기조 정책에 대응하여 현지 진출 및 현지 소싱 추진



한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의료기기	• 인니 정부의 산업육성 의지 활용, 실수요자 공략을 통한 시장 진출 • 역량 있는 현지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진출 방안 모색 • 원자재 현지 소싱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프로그램 대응
스마트팜	• 공동 R&D, 파일럿 실증, 제도 협력을 연계한 현지화 전략 • 현지 환경 적응성과 기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 실시 • 한-인니 정부간 협력 채널과 공공 파트너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화장품	• 한류의 높은 인지도 활용, 현지화를 통한 시장 안착 • 강화되는 수입규제 고려,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지 진출 및 OEM 등 현지화 강화 필요
사이버보안	• 역량 있는 현지 로컬 챔피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교두보 확보 •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로컬 전시회 및 컨퍼런스 적극 활용

전략 ①

[의료기기] 정부의 산업육성 의지 활용, 실수요자 공약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건강 인식 변화와 수요 증가를 진출 기회로 전환
 - 세계 4위 인구 규모, 소득수준 지속 향상 및 보건법 개정 및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는 큰 노력 중
 - * 인도네시아 보건부, '20-'24년 인도네시아 총 보험 지출액 연평균 18.2% 증가
- 현지 기업과의 협업(기술 이전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및 공략
 - 현지 생산이 어려운 품목 집중, 패키징 계약 체결, 현지 네트워킹이 가능한 파트너사 협업으로 현지 진출
- 원자재에 대한 현지 소싱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프로그램 대응

□ 현지 동향

- (정부 관심 분야) 의료기기는 Making indonesia 4.0의 중점 육성 분야로, 의료분야 정부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정부의 핵심공약은 빈곤·질병 등 기초생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건강 수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추진, 향후 정책적 수혜 예상
 - 의료분야 예산은 2022년 대비 2025년 약 63% 증가
- (성장가능성 高) 의약품·의료기기 수요 확대 기반 조성
 - (시장규모) 인니 의료기기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9.7% 성장을 통해 6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Motor Intelligence)
 - (수요) '24년 국민건강보험(Jaminan Kesehatan Nasional, JKN)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98%를 돌파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수요 증가
 - (정책) 인니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발표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 산업 관련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환경 개선 도모
- (의료역량 제고 필요) 성장 가능성에 비해, 내부적으로는 ▲ 전문 인력 부족, ▲ 수입 의존, ▲ 디지털화 지연 등으로 보건서비스의 질적·양적 한계 상존
 - 인도네시아 인구 대비 의료인력 및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
 - * '23년 인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0.2명, 일반의 수는 0.7명으로, WHO에서 권장하는 전문의 수인 인구 1000명당 0.3명, 일반의 수는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의료분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의약품 원료수입이 90%이며, 의료장비 거래 수입 또한 88%에 달함(인니 보건부, 2023년)
 - 전체 의료시설의 80%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지 못한 상태로, 의료 데이터에 대한 관리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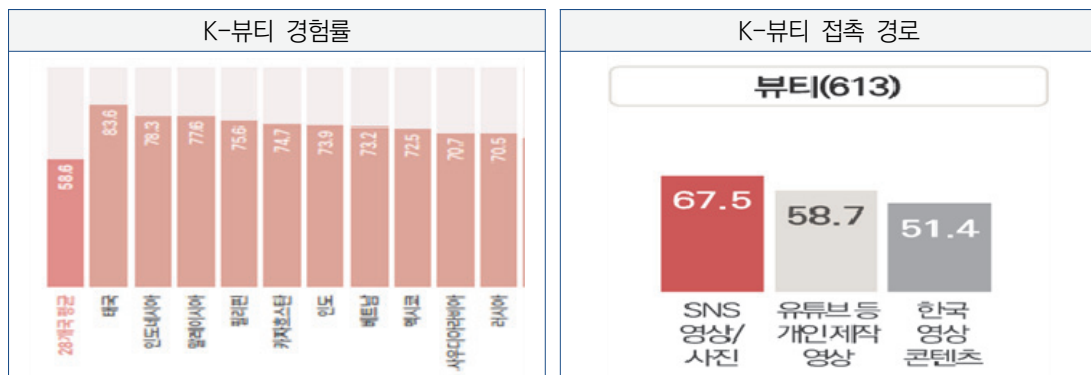
□ (유망 품목) High-Tech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피부미용 클리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 (High-Tech 기기) 인니에서 자체 조달이 어려운 High-Tech 기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 확대 추세
 - 현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주로 장갑, 붕대, 멸균기, 휠체어와 같은 기본품목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음
 - 반면 호흡기기, 촬영장치, 영상진단기기 및 인공관절 분야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
- (원격진료서비스) ▲인니의 지리적 특성, ▲의료 인프라 부족의 한계가 부각되며, 이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의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인니는 도서 지역과 농촌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면 진료에 대한 지리적 제약이 구조적으로 존재함.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용
 - 영상진단 기반의 대량 판독 시스템은 결핵 등 조기 스크리닝이 중요한 질환에 대해 인력·장비 부족으로 인한 진단 공백을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23년 인도네시아는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의 결핵 발생국으로, 전 연령층이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약 82만 건의 사례가 보고됨(2023 글로벌 결핵 보고서)
- (피부미용 의료기기) 인니에서 한류에 대한 인기 확산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피부미용에 시장 확대 추세
 - '22년 인도네시아 미용의료 시장규모는 약 2억 3,000만 달러, '28년까지 연평균 11.5% 성장하여 '28년 4억 5,000만 달러로 성장 전망(Arizton)
 - K-뷰티 확산과 함께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성형·피부과 등 뷰티 의료 기술이 인니에서 주목받고 있음

* 인니는 K-뷰티 경험률이 조사 대상 28개국 중 태국에 이어 2위이며, SNS 영상/사진을 기반으로 20대 소비 비중이 높음('25년 해외 한류실태조사)

〈인도네시아 K-뷰티 경험률 및 접촉 경로〉



자료: 2025년 해외 한류실태조사

□ (진출전략) 정부 사업을 활용하여 현지 파트너십 강화하고 실수요자 적극 공략

- 정부지원 상담회/전시회 및 공모사업 통해 현지 유력 파트너 발굴 기회로 활용
 - 현지 병원은 특정 디스트리뷰터와 패키지 계약을 맺는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 최초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고 접촉하는 루트가 제한적
 - 정부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및 상담회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인지도 확보 및 바이어 접점 확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상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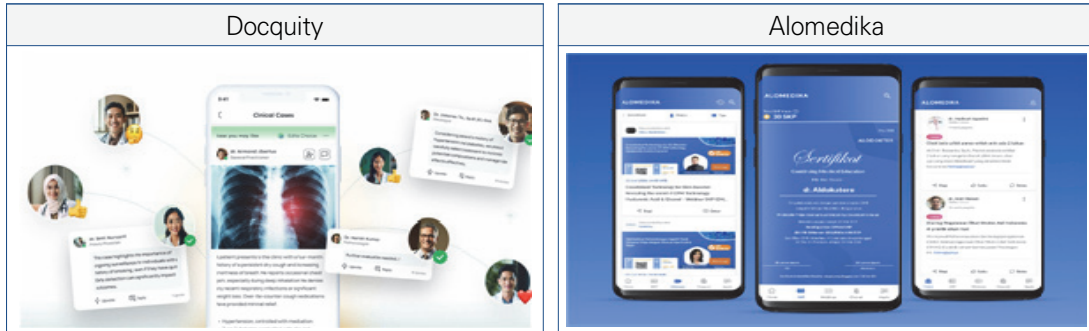


2025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행사명	2025 한-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
장소	자카르타 인터콘티넨탈 호텔
한국 참가	기업관계자 약 30명
인도네시아 참가	인도네시아 바이어 약 60명
주요 프로그램	1:1 수출 상담회

- (실수요자공략) 실수요자인 의사, 병원과의 네트워크 강화하여 진출 모색
 - 현지인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디스트리뷰터 발굴
- * A사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동남아 의사 네트워크 플랫폼인 Docquity에 홍보,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계약 체결

〈동남아 의사 네트워크 플랫폼〉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수술 시연·현장 체험·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력 및 사용 편의성 입증하며 실구매자 설득 기반 마련



실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사례

- D사는 인니 국립대 의과대학병원(RSUI)와의 협력을 통해 역행성 신장내 수술(RIRS) 트레이닝 센터 건립 계약 체결. D사는 단순 제품 유통에 그치지 않고,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기술 연계 활동을 통해 제품을 활용한 시술법까지도 의료진에게 체계적으로 전달
- A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제 임상 사례 기반의 강의와 구강 스캐너 실습을 병행하여 자사 제품 '저스트스캔'의 기술력과 사용 편의성을 현지 치과의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 국산 척추 내시경 제조업체 S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도움을 받아 양방향 척추 수술 시연에 자사 제품 활용, 다양한 동남아 국적의 의사들 참여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킴



의료기기 네트워크 관리 방법(D사)

-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서 최종 사용자인 의사들의 의사 결정권이 크며, 1명의 저명한 의사의 제자들이 사단을 만들어 수술 기구나 기법들을 그대로 사용
- 이런 사의료기기 협회들과의 네트워크는 대리상에게 판매를 위임했더라도 직접 관리가 필요, 한 번씩 한국에서 직접 네트워크 구축 차 방문하는 것을 추천
- 리베이트 영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에 가격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자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도 있음

- (현지 파트너십 강화)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합작법인에 이식하고, 현지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발굴
 -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구조적 진출전략이 요구됨
 - * '26년부터 전 의약품 및 일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이 의무화되며, 공공조달 시 적용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기준이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
 - 로컬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 협업을 통한 기술협력, 인증 공동 대응, 현지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



진출 성공 사례

- D사는 현지 제약사 인피온(Infion)과 합작해 수라바야 지역에 제약공장 준공. 의약품 할랄 인증을 획득 후 인니 빈혈치료제(EPO) 시장 점유율 1위 기록 중
- A사는 인니 최대 제약사인 칼베 파마(Kalbe Farma)와 합작 법인을 세우고 협업, 빈혈치료제 국제임상 및 최초 상업 출시 성공
- G사는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공학연구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 원료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공동 연구를 수행 중임. 아울러 인턴십과 교육 과정을 통해 현지 인재가 연구·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술협력과 인재 양성을 병행하고 있음

전략 ②

[스마트팜] 공동 R&D, 파일럿 실증, 제도 협력을 연계한 현지화 전략



전략 수립 배경

- 신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인니 스마트팜 시장은 아직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지 로컬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화 전략 필요
- 공동 R&D, 파일럿 실증 사업을 통해 현지 기후, 여건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 필요

□ 현지 동향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신정부 중점 관심 분야

- (정부 관심 분야) 신정부가 식량 자급자족,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농업시장 규모는 향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신정부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중요성을 감안, 식량 자급자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향후 정책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
 - 신정부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8,2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 학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대형 사업으로, 연간 약 209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
- (높은 성장 가능성) 인도네시아는 쌀, 커피 등 주요 작물을 생산하는 세계적 농업국이나, 농업 기반은 여전히 열악해 향후 성장 여지가 큼
 - 인니 농업시장은 '23년 2,230억 달러에서 '28년 3,360억 달러로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유로 모니터)
 - 농업은 인니 전체 취업자의 28%가 종사하고 GDP의 12.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국가 경제와 고용, 국민 생활에 중요(인니 통계청)
 - ▲ 부족한 장비와 기술 ▲ 낮은 생산성 ▲ 품질 불균일성 등 한계를 안고 있으나, 이러한 제약이 개선될 경우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큼
 - * 총 농지 면적은 약 5,380만 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29.8%를 차지하지만, 경작 가능한 농지의 비율은 약 9.5%에 불과하고, 농경지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세계은행)
- (높은 협업 수요) 한류에 따른 K-푸드 관심 증가, 한국 과일 수요 확대 추세
 -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 식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프리미엄 이미지가 부각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추세
 -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현지 유통업체가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업을 타진하거나 자체 판매 공간 설치, 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등 협력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

□ (유망 품목)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 등 기술 기반 농업이 핵심 수혜 분야로 부상

-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안정 심화,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 수요 증가
 - 식량 안보 확보가 국가 과제로 부상하면서, 현대 농업기술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23년 엘니뇨로 인해 인니 쌀 생산량이 급감했으며, '24년 3월까지 쌀 수입량이 180만 톤을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로이터)
- 기술 기반 정밀농업은 생산 효율성 및 기후 대응력 강화에 효과적
 - 스마트팜은 센서, 자동화, 데이터 기반 관리 등을 통해 물·비료·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수확량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정부·민간 주도의 디지털 농업 생태계 확대와 외국 기업 협력 여지 증가
 - 청년층 대상 애그리테크 창업 지원, 도시형 농장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농업 전환 정책이 활발히 추진 중

〈정부 주도 애그리테크 장려 프로그램〉



자료: 인니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인니 농업부

- 인니 스마트팜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 실증 사업 중심에서 본격적인 산업화로 전환 중
 - 인니 스마트팜은 아직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국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시범 사업 중심으로 추진 중(인도네시아 농업대학교)

□ (진출전략) 공동 R&D, 파일럿 실증, 제도 협력을 연계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기술 적합성과 진입 기반을 함께 확보

- (공동 R&D) 현지 여건을 고려한 공동 R&D 및 기술 개발
 - 현지 기후·토양·작물 여건을 반영한 공동 연구 및 기술 실증을 통해 기술 신뢰도 확보
 - 단순 기술 수출이 아닌, 현지 농업 시스템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장기 협력 기반 마련

- 아열대 맞춤형 재배 플랫폼 개발, 현지 농업 인력 대상 교육, 유지보수·관리 역량 내재화 등 기술 이전과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는 접근



스마트팜 협력 사례

- 사례 1 : G사 -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 스마트팜 기술 개발 협력
 - G사는 인니 남술라웨시주 산하 공기업 PT SCI 및 국내외 민간기업들과 스마트팜 원예기술 공동 연구 및 현지화 모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이는 한국의 K-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현지 기후·작물 여건을 반영한 기술 개발, 연구센터 설립, 농업 교육 및 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며, 기술 수출을 넘어 지역 맞춤형 농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 사례 2 : F사 - 고온다습형 스마트온실 모델 공동 개발 및 수출 기반 구축
 - F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추진하는 ‘고온다습형 스마트온실 패키지 개발’ 과제를 바탕으로, 인니 보고르농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남아 기후에 적합한 스마트팜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 중
 - 이를 통해 자재 내구성, 냉방 시스템, 경제성 등 기술요소를 현지 조건에 맞춰 설계·실증하며, 인도네시아 수출형 스마트팜의 R&D 기반 구축

- (파일럿 사업) 현지 환경 적응성과 기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 실시
 - 스마트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후·토양 등 환경 차이로 인해 기술의 직접 적용이 어려워, 현지 맞춤형 실증 필요
 - * 인니는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한국 기술의 직도입이 어렵고, 현지화 과정 필수
 - * 실증을 통해 기술 적합성, 생산성 개선 효과, 운영 효율성 등을 직접 검증 가능
 -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제도 협력, 사업 확장, 현지 인식 개선 도모
 - * 실증 성공 사례는 향후 정책 연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이어짐



현지 시범사업 사례

- G사는 인도네시아 INSTIPER 농업대학과 협력해 AI 기반 스마트팜 시범 모델을 구축, 현지 맞춤형 기술 실증 및 지속가능 농업 생태계 조성 추진
- H사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와 협력해 딸기 중심 스마트팜 사업을 전개, 정부 차원의 제도 지원을 기반으로 전국 확산 및 기술 보급 추진
- A사는 인도네시아 지방 공기업과 협력해 첨단 농업기술과 관광을 접목한 딸기 스마트팜 테마파크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국 간 지속가능 농업 협력 모델 구축 추진

- (제도협력) 정부 간 협력 채널과 공공 파트너 연계를 통한 진출 확대
 - 한-인니 ODA 통합 정책협의회에서 농업·식량안보가 전략적 협력 의제로 지정되며, 스마트팜 기술도 중점 협력 분야로 부상
 - 한국 정부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통해 수출형 온실 모델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실증과 연계해 진출 기반을 구축 중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 공동 추진 사업
 - 인니 정부는 국가혁신청(BRIN), 지방정부, 국립대 등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양국 간 제도 협력 기반을 활용하면 단순 민간 협력보다 시장 진입 수월
 - * 단순 민간 협력 대비 인허가, 정책 연계 등 시장 진입 과정이 보다 용이



양국 협력 모멘텀을 활용한 사례

- B사는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팜 실증 모델을 추진 중이며, 부지확보와 인허가 등에서 공공 협력의 이점을 확보
- K기관은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스마트팜 실증을 추진하며, 공공 협력을 바탕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확보
- A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인니 스마트팜 ODA 프로젝트를 시행, 인도네시아 청년농업인과 교관·교수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스마트팜 시장 소개, 연수를 통해 스마트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 조성
- 경기 화성특례시, 아세안 5개국의 식량안보 분야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 한국 스마트팜 운영 선진 사례를 공유. 각 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인하며, 자국 내 도입 방안 논의

전략 ③

[화장품] 한류의 높은 인지도 활용, 현지화를 통한 시장 안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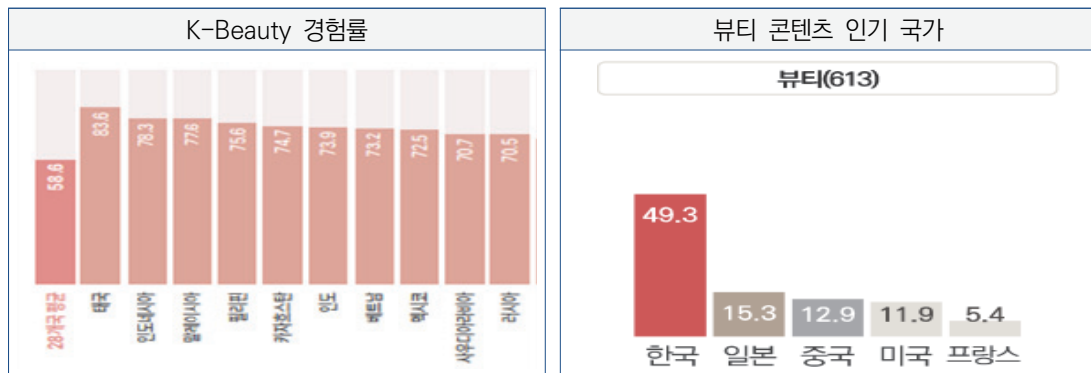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한류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화장품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인지도 및 인식 개선
- 할랄 인증, BPOM 등 수입 규제 및 인허가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시장 및 진출 요건 관련 사전 준비 필수
 - 할랄 인증 제품 수요 증가 전망, 선제적 인증 취득 또는 현지 생산업체와 협업으로 대비

□ 현지 동향

- 인니 화장품 시장은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매출 규모는 '20년 11억 8,000만 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5년 20억 8,0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Statista)
 -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6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Statista)
-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K-Beauty에 대한 경험률은 높은 수준이며, 한국 뷰티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국가를 크게 상회('25년 해외 한류실태조사)
 -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 이어 한국화장품을 선호하는 두 번째 국가로,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한국 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도〉



자료: 2025년 해외 한류실태조사

-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산 화장품 수출은 증가 추세

연도별 對인니 한국 화장품 수출금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수출금액	71	57	80	137	100
증감률	14.0	-20.1	41.9	70.0	12.0

주: MTI 4자리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5.9.)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할랄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은 현지 브랜드가 한국화장품과 유사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며 빠르게 시장을 공략 중
 - 현지 위탁생산(OEM)을 통해 물류비용을 낮춘 한국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저가 중국 화장품이 인니에 빠르게 진출하며 한국산 제품과 경쟁구도 형성

인도네시아 주요 화장품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제품 종류	기본 정보
Mustika Ratu		스킨케어, 헤어케어, 페이스 메이크업,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화장품 브랜드로, 캐나다, 미국, 체코, 수리남, 대만을 포함한 20여 개국에 진출
Sariayu Martha Tilaar		스킨케어, 립케어, 바디케어, 헤어제품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 중 하나로, 호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모리셔스 등 진출
Wardah		스킨케어, 립케어, 아이 메이크업, 페이스 메이크업	•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할랄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
BLP Beauty		페이스 메이크업, 립메이크업	• 2016년 설립되어 2022년 파리 패션 위크에 최초로 참가 자격을 얻은 인도네시아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제품 종류	기본 정보
Make Over		아이, 페이스 메이크업, 립케어, 스킨케어	• 제품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색상, 질감, 기능을 갖춘 전문 화장품 브랜드
Luxcrime		아이, 페이스 메이크업, 립메이크업	• 2015년에 되어 인도네시아 여성 피부 톤에 맞는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판매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언론사 종합

-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장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인니에서 필수적인 식약청 인증(BPOM)은 발급에 오랜 시간(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26년 할랄 인증 계도기간 종료되어 할랄 인증 또한 받아야 함
 - 특히 BPOM은 인증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제품별로 등록하기 때문에 한 개의 현지 기업만이 등록할 수 있음. 그 결과 현지 수입상이 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사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함
 - 마켓 테스트로 활용하던 해외 역직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 해외직접구매제품의 경우 미화 100달러 미만의 제품 수입이 불가능해짐
 - 인니 정부는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강화하여, 일부 품목들은 사전수입승인(PI), 선적 전 검사(LS),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적용 대상

□ (진출전략) 한류 인기를 활용해 정부 지원 전시회로 시장성을 테스트하고, 장기적으로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단계적 진출전략이 필요

-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B2C 전시회를 통해 기회 발굴
 -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전시회 및 상담회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이 현지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마켓 테스트로 활용
 - 또한, 자사 제품을 수입할 잠재적인 바이어와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현지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
 - 식약청 인증(BPOM)은 현지 바이어가 취득해야 하므로 바이어와 마켓 테스트 단계부터 협업 시 인증 획득이 수월 및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도네시아 JI 프리미엄 전시회 사진〉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강화되는 수입규제 추세 고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진출/현지화 고려 필요
 - 할랄, BPOM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공략 필요

전략 ④

[사이버보안]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맞춤형 솔루션 제공



전략 수립 배경

- 정부의 디지털 전환 의지가 강력하여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와 관련된 디지털 보안 준비 수준은 미흡
 -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대비를 위해 데이터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 전망
-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현지 파트너사 협력 필요
 - 시범 프로젝트, 현지 전시회 등을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여 인지도 확보

□ (현지 동향)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사이버 보안 중요성 확대

-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전환을 정부 핵심 과제로 선정,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4년 90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3,6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디지털통신부는 사이버 위협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체계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도 병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사이버 공격 발생 빈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인니는 2022년 기준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3억 6,000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기록됨
 - '24년 6월에는 임시 국가 데이터 센터가 세계 최대 해커집단 록빗(Lockbit)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44개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80여 개 기관의 서비스가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
-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관련 법제도도 강화되는 추세
 - '24년 10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으로,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손해 배상 청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됨
 - 그러나 기업의 대응 역량은 여전히 낮아, 전체 기업 중 11%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 ('25년 시스코 보고서)
- 이러한 배경 아래 인니 사이버 보안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예상됨
 - 인니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4년 14억 3,000만 달러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24.2% 성장하여 2029년에는 42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Modor Intelligence)

□ (유망 품목) 금융 보안 솔루션, 데이터 보안 솔루션

-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과 젊은 인구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

-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한국계 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발맞춰 국내 금융사들이 대거 진출
 - 이에 따라 모바일 앱의 위변조나 악성 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 등 금융 보안 솔루션에 대한 현지 진출 금융사들의 수요 확대 전망

국내 금융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

(단위: 개)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여전	합계
회사	7	7	6	2	8	30
점포	9	8	6	2	9	34
내용	[현지법인]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리*, 산은, 수출입 [사무소] 산은, 수출입	[현지법인]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지법인]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현지법인]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 운용	[현지법인]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캐피탈,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

* 우리은행 현지법인은 반동에 소재, 나머지는 모두 자카르타 소재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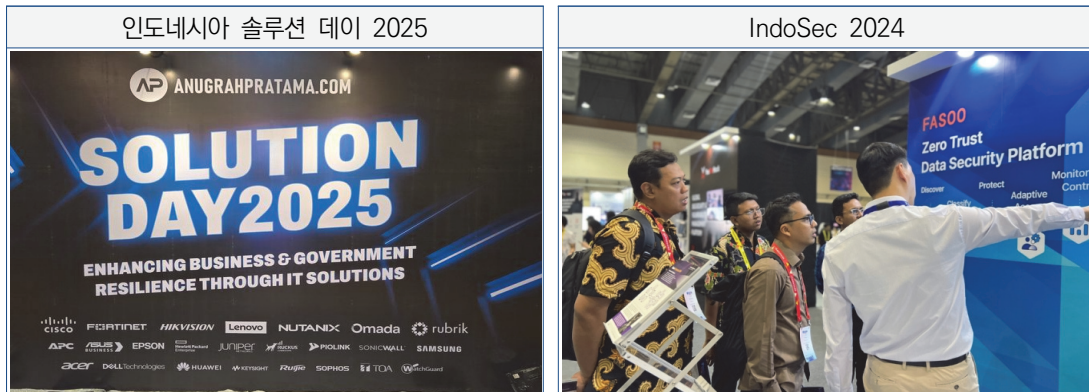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PDP Law)은 기업과 기관이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
 - 자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네트워크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음
 - 개별 기업들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고려 필요
- * 현지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의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

□ (진출전략)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교두보 확보

- 현지 인니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로컬 협력 프로젝트 적극 활용
 - 한국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합작법인에 이식하고, 현지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및 확보함으로써 윈-윈 가능
 - 현지 파트너의 시장 경험을 활용, 인니 기업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기술적 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 가능
-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로컬 전시회 및 컨퍼런스 적극 활용
 - 인니 보안 시장은 국제 전시회(Indo Securitech)나 정부 주관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가능
- 나아가 직접 자사 보안 솔루션을 현지에서 시현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사이버 안보 관련 주요 전시회〉



자료: 파이오링크, 파수



사이버 보안 솔루션 현지 진출 사례

- C사는 현지에서 강력한 영업망과 기술력을 갖춘 B사와 손잡고 자사의 차세대 NDR 보안 솔루션인 패킷 사이버를 인도네시아 금융권에 성공적으로 공급
- A사는 '19년 인니 기업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빠르게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을 획득,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상시 보안 취약점 관리 솔루션 공급
- N사는 로컬 I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교육으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예정



콘택트렌즈

- 선정사유**
- 뷰티렌즈는 K-POP과 K-Drama 팬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성 또한 향후 높을 것으로 보임
- 경쟁동향**
- 미국의 아큐브 등 글로벌 브랜드 및 중국 등과 경쟁
 - 또한 Pink Rabbit 같은 현지 브랜드는 한국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진출방안**
- 주 소비 대상이 미용렌즈 관심도 높은 MZ 세대 집중
 - 98%가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되나 일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
 - 인도네시아 보건부 규정 상 의료기기 C등급에 속해 보건부 인증을 위한 관련 서류 사전 구비 필요
 - 위험도에 따라 A에서 D로 구분하며, D가 가장 위험한 제품

안과용 기기

-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는 가처분 소득 증가, 근시와 백내장 등의 안과 질환 발병률 증가로 안과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료특구 지정에 따른 안과용 기기 수요 증가 예상
- 경쟁동향**
- 인도네시아의 안과용 기기 수입시장 점유율 1위, 2위는 각각 미국과 일본
 - 제품 구매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강조되며, 규모가 작은 병원인 경우 제품 가격이 주요 고려 대상
- 진출방안**
- 제품의 실수요자인 의사 네트워크 확대 필요. 제품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인니 의사들에게 직접 홍보 필요
 -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발굴·관리

기초화장품, 메이크업용 제품류

- 선정사유** • SNS마케팅과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 인기상승
- 경쟁동향** • 주요경쟁사 : 로레알, 더바디샵, 시세이도, Wardah, 바이어스도프(니베아), 유니레버, Scarlett, Somethinc, Whitelab, Azarine 등
- 진출방안** • 현지 역량있는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 현지 할랄 및 무해한 성분에 민감한 트렌드, 할랄인증 및 유기농 인증 취득과 더불어 관련 마케팅 시행

자동차 부품

- 선정사유** • 아세안 내 자동차 제조 허브이며, 한-인니 CEPA 협정으로 관련 제품 관세 대폭 인하
• '24년 고금리 지속에 따른 구매력 악화로 신규 차량 판매는 부진하고 있으나, 애프터마켓이 활성화 되면서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 경쟁동향** • 일본 및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으며, CEPA 체결로 가격 경쟁력을 보완
- 진출방안** • 현지 진출 우리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 강화
• 로컬 챔피언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통해 경쟁국 완성차 업체 대상으로 신규판로 개척

강관

- 선정사유** • 경제안보 일환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석유·가스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
• 강관은 생산로에 쓰이는 기자재이나, 현지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해당,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경쟁동향** • 독일, 일본 또한 인도네시아에 강관을 수출하고 있는 경쟁국
- 진출방안** • 현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협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로 진출



사이버 보안

- 선정사유** • 디지털 경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지에서 이에 대한 대비는 시장의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양상
- 경쟁동향** • 미국, 일본, 유럽 등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
- 진출방안** • 사용자 언어 변환뿐 아닌 인터페이스까지 고려한 현지화 전략 필요

콘텐츠

- 선정사유** • 한류 문화의 핵심 분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인기
- 경쟁동향** • 해외 콘텐츠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로 진출
• 인도네시아 로컬 콘텐츠 비중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미국·중국 등 해외 콘텐츠가 더 인기를 끌고 있음
- 진출방안** • 현지 시장에서 역량 있는 파트너 발굴
–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가능하나, 현지 민감한 콘텐츠 이슈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파트너사와 협업 권장
• 사전 지식재산권 등록 등 법적인 문제 대응방안 마련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같은 정부 협력 사업을 활용하여 초기 시장 공략

금융

- 선정사유** •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 전환 의지에 따라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수요 ↑
- 경쟁동향** • 인니은행 : BRI, BNI, BCA, Bank Mandiri, BTN, BII 등
• 외국계 은행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UOB, 미쓰비시 도쿄 등
• 핀테크업체 : Buka Dompot, Doku, Inapay iPay 88, iPayMu 등
- 진출방안** • 보험 추천, 할부금융, 핀테크 기반 지불결제서비스, 카드사업 등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진출을 위해 액셀러레이터나 그룹사 등 투자자 물색을 권장
• 인도네시아 정부 은행·보험 업무 효율화 컨설팅 사업에 참여



'26년 인도네시아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시기(월)	장소
바이오	한-인니 바이오테크 수출 로드쇼	4	자카르타
AI	AI 시티·팜 산업협력 포럼	5	자카르타
EV	한-인니 EV-e모빌리티 포럼/상담회	6	자카르타
기계	인도네시아 기계 지자체 통합사절단	6	자카르타
조선 해양	Inamarine 전시회 연계 상담회	7	자카르타
전력 기자재	Electric & Power 전시회 연계 상담회	9	자카르타
통상	할랄 인증 설명회	4	자카르타
투자진출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6	자카르타
취업	인도네시아 취업 박람회	9	자카르타
소비재	K-Food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7	자카르타
소비재	Jl Premium 연계 유통망 입점 및 테스트 마케팅 사업	9	자카르타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해당없음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해당없음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donesia International Motor Show(IIMS)	2월 5~15일	JIEXPO Indonesia
Indonesia International Furniture Expo(IFEX)	3월 5~8일	ICE-BSD City
Lab Indonesia	4월 15~17일	ICE-BSD City
Indo Intertex	4월 15~18일	JIEXPO Indonesia
Inatronics	4월 22~24일	JIEXPO Indonesia
Battery & Energy Storage Indonesia	4월 22~24일	JIEXPO Indonesia
Inalight	4월 22~24일	JIEXPO Indonesia
Food, Hotel & Tourism Bali(FHTB)	4월 28~30일	Bali Nusa Dua Convention Center (BNDCC), Bali
Food + Beverage Indonesia	5월 6~9일	Nusantara International Convention Exhibition, PIK 2
Indonesia International Auto Parts Accessories & Equipment Exhibition	5월 20~22일	JIEXPO Indonesia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정윤재	과장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yjchung@kotra.or.kr
2	Arindra Fauzan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arindra@kotra.or.kr
3	Audrey Muchsya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audrey@kotra.or.kr

2026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37-9 (95320)